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8.557661-63

3 CD SET

베리오 :
세쿠엔차 전곡 (1-14번)

보리스 베르만(pf), 노라 술만(fi),
재스퍼 우드(vn) 외

목소리와 13종의 다양한 악기들의 획기적인 주법과 유사 폴리포니에 대한 다양한 실험성이 덧붙여진 혁신적인 창조물들. 2002년 완성된 마지막 14번은 물론 7번과 9번의 이중 버전들까지 완전한 최초의 전곡음반.



8.557689

브루흐 :
바이올린협주곡 1번, 로망스

막심 페도토프(vn),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국립음악원과 러시아 뮤직아카데미에서 많은 후화를 길러낸 명교사이며, 연주가로서도 '인민예술가'의 영예를 획득했던 페도토프의 명인기가 한껏 부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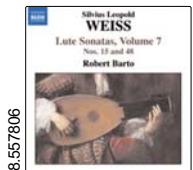


8.557796

JS 바흐 :
푸가의 기법 BWV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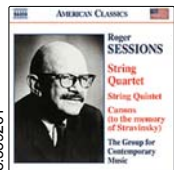
세바스티앵 기요, 하프시코드

하프시코드 독주로 이 위대한 걸작에 도전하였다. 세바스티앵 기요는 아스페렌의 제자로 1997년 브뤼헤 콩쿠르의 2등상을 차지했던 실력과 연주자.



8.557806

바이스 :
루트 소나타 7집 (15, 48번)
로베르트 바르트(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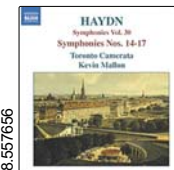
8.559261

세션스 :
현악사중주, 현악오중주
더 그룹 포 컨템포러리 뮤직



8.557545

스트라이크 업 더 밴드!!
(유형 행진곡 컬렉션)
에르케르 요한손
왕립 스웨덴 궁극 군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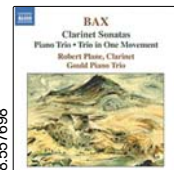
8.557656

하이트 :
교향곡 14, 15, 16, 17번
케빈 말로
토론토 카메라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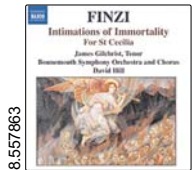
8.570028

칸도쉬킨 :
캐서린 여제 시대의 러시아 바이올린 작품들
아나스타시야 키트루크
(바이올린)



8.557698

백스 :
클라리넷 소나타, 피아노 트리오, 로망스 외
로버트 플레인(c),
골드 피아노 트리오



8.557863

핀치 :
영생의 조짐들, 성 세실리아를 위한 송가
제임스 질크리스트(te)
데이비드 힐
본머스 심포니 & 합창단



8.557852

비발디 :
스타바트 마테르, 라우다테 푸에리, 칸타 인 프라토
트레이시 스미스 베셋(sop)
마리언 뉴먼(ms)
케빈 말로
아라리아 앙상블



8.559278

로렐 :
플루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제프리 칸나(fi)
필립 쿤트(vn)
호세 세레브리에르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8.559444

자이몬트 :
아브라함과 야삭 이야기, 안식일 저녁을 위한 전례
제임스 막달레나(bass)
제러드 슈워츠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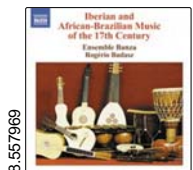
8.557850

프랑켈 :
늑대인간의 저주, 그들, 죄수 외
칼 데이비스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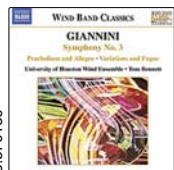
8.557734

윌란 :
하늘 왕국에서 (찬송가와 모테트)
조셉 슈너(te), 매튜 라킨(org)
노엘 에디슨
엘로라 페스티벌 싱어즈



8.557969

17세기 이베리아, 아프리카-브라질 음악을 앙상블 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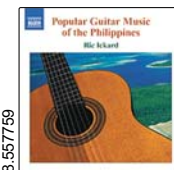
8.570130

잔니니 :
교향곡 3번, 전주와 알레그로, 변주와 푸가 외
틀 베네티
유니버시티 오브 휴스턴 윈드 앙상블



8.579001

도먼 :
피아노 소나타 1, 3번, 악중의 순간, 아제르바이잔 춤곡
엘리안 아브네(피아노)



8.557759

필리핀 파플러 기타 뮤직
릭 익커드, 기타



8.557679

파티투르부흐
(17세기 독일 궁정의 기악 작품들)
앙상블 에코 두 다뉴브



8.680116-17

베를리오즈 :
파우스트의 찬별
장 클로드 카자드쉬
릴 국립 교향악단

2 CD SET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May, June 2006



<4 for 1> Super Budget

독일 쿼드로마니아(Quadromania)시리즈

World Music Hot Issue

떠돌이별 임의진의 기차여행

Naxos Musical Journey DVD

피렌체 / 노르웨이 / 찰츠부르크 / 스코틀랜드

Cover Story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

파블로 카잘스는 1876년 12월 29일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의 벤드렐(Vendrell)에서 태어났다. 카잘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Carlos Casals)는 마을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 겸 합창지휘자였다. 그 가정의 음악적 분위기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카잘스는 특히 아버지가 자신의 음악인 생의 진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한다. “나의 모든 음악적 재능은 거의 나의 아버지한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아버지는 나를 교회의 모든 예배행사에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레고리오 성가, 각종 코랄, 그리고 오르간 명곡들은 나와 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카잘스에게 노래, 피아노 연주, 오르간 그리고 작곡까지 가르쳤다. 여섯 살 소년은 대중 앞에서 독주를 할 정도로 수준급의 바이올린 솜씨를 과시하기도 했다. 순회 공연하는 카탈로니아 음악가들이 사용하던 첼로 같은 악기에 매혹된 느낌을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아버지는 사운드박스 통을 사용한 작은 첼로를 만들어주었다. “집에서 만든 이 악기를 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작곡한 많은 노래들과 외부에서 마을로 유입된 대중가요들의 연주법을 배웠다.” 종종 진짜 첼로 소리를 들을 때면, 점점 그것이 자신의 악기라는 확신이 짙어졌다. 호세 가르시아의 첼로 연주회에 참석했을 때는 ‘너무도 부드럽고 인간적인 소리’에 매혹되어, 첼로와 자신이 어떤 운명 같은 것으로 엮여 있다고 느끼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아버지는 조그마한 첼로를 사주고 아들을 곧 가르시아 선생이 있는 바르셀로나 시립 음악학교에 들어가게 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카페 삼중주단에서 연주하면서 카잘스는 알베니스의 음악을 알게 된다. 보다 큰 카페에서 일곱 명으로 된 앙상블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쯤 그에게는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된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 조직한 일곱 명 밴드로 연주할만한 레퍼토리를 찾던 중에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널리 알려진 앨버트 칸의 책에는 카잘스의 흥분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날 아버지는 나에게 처음으로 폴사이즈의 첼로를 사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부둣가의 오래된 악보 상점에 들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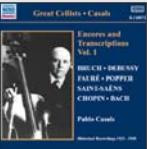
다. 많은 스코어들을 여기저기 훑어보다가 우연히 낡고 색이 바랜 한 묶음의 스코어를 발견했다. 아, 그것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다. 나는 마치 왕관에 달린 보석들처럼 그 악보를 품고 돌아와 방에 처박혔다. 그리고 몇 번이고 계속 탐독했다. 그때 내 나이 열세 살이었지만 그 후 80년 동안 그것을 처음 대했을 때의 놀라움은 항상 생생하게 마음속에 남아 있다. 나는 말로써는 다할 수 없는 흥분을 느끼며 이 곡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12년간 매일 밤 그 곡을 연구하고 연습했지만 그 중 한 곡이라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결국 스물다섯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연주해도 되겠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발견 당시 카잘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생한 증거다. 이후 스페인 출신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와도 친분을 쌓는다. 알베니스의 도움을 받아 마드리드로 이사와 그곳에서 중요한 후원자를 만나게 된다. 마리아 크리스티나 여왕이었다. 그는 여왕의 총애 받는 음악가가 되었고, 그녀의 도움으로 아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음악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랄로의 협주곡으로 마드리드 오케스트라에 데뷔했고, 1899년에는 동곡을 런던의 크리스털 팰리스와 파리의 라무뢰 콩세르에서 연주했다. 1901년에는 미국을 연주 여행, 1905년에는 파리에 정착, 알프레드 코르토, 자크 티보와 함께 유명한 피아노 삼중주단을 결성했다. 대중들의 가슴에 위대한 첼리스트로 각인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바이올린의 미묘한 비브라토로 사람들을 매혹시켰다면, 카잘스는 첼로의 크라이슬러였다. 그의 보잉은 당대 어떤 첼리스트도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자유로웠고, 표정이 매우 인상적인 인토네이션을 구사했으며, 테크닉 상의 혁신은 말할 것도 없었다. 약 12년간 바흐의 무반주 모음곡을 갖고 닦은 후 20세기 초반에 드디어 대중들 앞에 자신의 카드를 내보였을 때 그는 당대 첼리스트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음악애호가들을 놀라게 했다. 바흐의 무반주 모음곡과 관련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있다. 흔히 1889년 13세의 어린 카잘스가 바르셀로나

의 한 고서점에서 먼지로 뒤덮인 악보들 틈에서 찾아내어 연주했다는 에피소드가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그가 마치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의 최초 발견자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바흐의 악곡은 1824년 파리에서 출판된 바 있으며, 그 후로도, 비록 오늘날과 같은 모음곡 형태로는 아니었지만, 악장별로 분리된 악곡으로 종종 연주되곤 했기 때문이다. 즉 카잘스가 무반주첼로 모음곡의 최초 발견자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에피소드는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가 바흐의 작품을 모음곡 형태로 묶어서, 그것도 아주 혁신적인 연주법으로 재해석낸 최초의 위대한 첼리스트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카잘스는 1919년에 바르셀로나에서 파블로 카잘스 오케스트라를 창단했고, 1931년에는 그 악단으로 스페인 정부의 탄생을 축하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지휘했다. 하지만 시민 전쟁 및 파시즘의 승리로 카잘스의 생애와 경력에는 약간의 균열이 생긴다. 완고한 그는 히틀러의 독일에서 연주하기를 거부했고,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일도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남 프랑스로 망명하고 만다. 2차 대전 이후 영국과 미국이 반대진영에 대해 유화정책을 쓰자, 그는 갑자기 대중 앞에서의 연주를 중단하고, 당시 완성 일로에 있던 하이든 D장조 협주곡의 런던 녹음계획도 취소해버린다. 1950년에 미국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카잘스는 자신의 새 고향이 된 프라드(Prades)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페스티벌을 열어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낸다. 느지막하게 카잘스는 실내악 연주가로서, 음악 선생으로서, 지휘자, 그리고 음악 최고의 권위자로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것이다. 1956년에 카잘스는 어머니의 고향 땅인 푸에르토 리코로 이사했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어린 제자인 마르타 몬타네스(Marta Montanez)와 결혼했다. 음반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1961년에 백악관에서 연주했던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장의 비네토로 남아 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라는 영예를 안고 카잘스는 1973년 10월 22일 어머니의 고향 푸에르토 리코에서 세상을 떠났다.

낙 소 스 에 서 내 놓 은 그 의 음 반 들



Naxos 8.110972



Naxos 8.110185



Naxos 8.110188

맥도웰의 ‘로망스’,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저녁의 노래’, 그리고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녹턴 Op.9-2’, 포레의 ‘꿈꾸고 난 후에’, 바그너의 <탄호이저>중 ‘저녁별’,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중 ‘수상의 노래’, A. 루빈스타인의 ‘멜로디’, 고다르의 <조슬랭>중 ‘차장가’, 브루흐의 ‘롤 니드라이’ 등 그야말로 주옥같은 명곡들을 담은 음반. 이 위대한 음악가한테서 이렇게 널리 알려진 명곡들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이다. 1925년과 1928년 사이의 음원인데, 노이즈가 거의 제거된 복각상태도 매우 좋다.

티보, 카잘스, 코르토 세 명 연주가가 트리오로 활동한 사실은 실내악 연주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건 중의 하나였다. 이 음반은 그들의 초창기 활동 내용을 담은 것으로 멘델스존은 1927년, 슈만은 1928년 녹음이다. 이 음반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연주자들이 평소 즐겨 연주하던 레퍼토리 두 곡을 담았다는 데 있다. 코르토의 여유 만만한 풍모와 진지한 열정, 카잘스의 벨벳 톤의 현, 그리고 거기에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티보의 우아한 프레이징은 정말 아름답다.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의 삼중주곡들이다. 요즘에 비하면 스타일은 많이 구식이고, 음향 역시 왜곡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처럼 생생하고 풍부한 정서로 넘실대는 연주는 요즘의 어떤 연주가들한테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하이든의 안단테 칸타빌레 악장에서 티보가 들려주는 달콤한 선율, 오묘한 색채감도 일품. 무엇보다도 카잘스 트리오의 장기였던 슈베르트의 작품은 이 음반에서도 압권이다. 슈베르트 악곡에 깃든 따스한 정서, 아련한 분위기를 정말 아름답게 그렸다.

- 8.110985 Encores and Transcriptions, Vol. 3 (1915-1916)
- 8.110976 Encores and Transcriptions, Vol. 2 (1927-1930)
- 8.110972 Encores and Transcriptions, Vol. 1 (1925-1928)
- 8.110949-50 BEETHOVEN / BRAHMS: Cello Sonatas (Casals) (1930-1939)

- 8.110930 BRAHMS / DVORAK: Cello Concertos (Casals) (1929, 1937)
- 8.110915-16 BACH, J.S.: Cello Suites Nos. 1-6 (Casals) (1927-1939)
- 8.110305 BOCCHERINI / HAYDN / ELGAR: Cello Concertos (Casals) (1938, 1945)
- 8.110195 BEETHOVEN: Archduke Trio (Thibaud / Casals / Cortot) (1926-1927)

떠돌이별 임의진의
기차여행 by Train

기차 여행, 떠돌이별 임의진의 옆좌석에 앉아

지난 <여행자의 노래> 시리즈로 국내 월드뮤직 애호가들
에게 놀라운 감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는 시인, 수필가, 방
랑악사, 월드음악평론가, 화가이기도 한 <떠돌이별 임의
진>의 새로운 컴필레이션 시리즈가 첫선을 보인다. <기차,
비행기, 배, 버스 여행>이라는 네가지 주제를 놓고, 그 첫
번째! 기차를 테마로 삼아 중형무진의 유랑속에서 견져올
린 음원들과 김두수를 비롯한 음악친구들의 신곡을 묶어
오늘 <떠돌이별 임의진의 기차 여행>이 탄생했다. 기차여
행의 선곡자이며 집시 가수로도 호명되는 임의진은 특이
한 이력의 소유자다. 마치 빈센트
반 고흐가 그랬던 것처럼, 남녘교
회라는 전남 땅끝의 시골교회에
서 가난한 농부들과 지내며 10년
간 목사로 시무했고, 이후 교회를
떠나 산골로 은둔, 특별한 공연이
나 갤러리와 같은 홈페이지를 제
외하고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
내지 않고 나투어 살아간다. 그의
별칭 <어깨춤>, <떠돌이별>은 술
한 이력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아
호들이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
자>에 전해지는 <음악에 대하여>



AMC2-067

를 그는 몸으로, 경험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
차 여행>은 컴필레이션 음반이라기보다는 옴니버스 음반
에 가깝다. <기차 여행>을 위하여 새롭게 녹음한 음원들이
여러 곡 실렸다. 이는 저간의 선곡 음반들이 그러한, 성의
없거나 대중성에만 기댄 흥행성 음반과 격을 달리하는 대
목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의 변혁을 모색하다 어느 고비로
부터 전세계 배낭여행, 망야도주로 일관하고 있는 임의진
에게 있어 음악은 유일한 길동무가 되어 주었다. 배고픔,
헤메임, 길에서 누워본 여행자에게 다정한 위안이라고 하
는 것이 음악 뿐일지도 모른다. 간편한 기타(Guitar)를 중
심으로 한 인디, 언더그라운드 가수에 대한 소위 ‘임의진
식’ 소개는 주류 음악계로 전면통합된 대로에서 탈출하여

위로와 용기의 정거장으로 달려가게 만든다. 비주류의 음
악이 주는 묘묘한 기운, 제3 세계의 월드뮤직이 안겨주는
연민과 화염의 고리에, <무無경험자>로도 <무無임승차>의
행운을 안겨 준다. 뿐만아니라 <여행 음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인다. 기차에서 듣고 부르고 했던 노래들, 임
의진이 일부 번안한 <돌아오라 소렌토로>를 포키의 전설
이자 신화인 김두수가 불렀다. 김두수와 임의진은 단짝 길
동무로 <여행자의 노래> 시리즈에서부터 깊은 보헤미안의
우정을 나누고 있다. 이번에도 김두수의 노래는, 알수 없
는 고독과 우수의 절절한 잔향을 남긴다. 김두수는 한국의
유일무이한 아트포크 록커다. <자유혼> 등을 통해 은둔의
미학에서 길러낸 시로 노래하는
음유시인으로, 삶 자체가 눈부
신 들꽃이다. 또다른 길동무 박
남준 시인은 모악산을 떠나 지
리산으로 이거, 홀로 살고 있는,
시집 <적막/창비시선 2005>의
주인공이다. 새시집에서 시 한
수를 뽑아 기차 여행에 동승했
다. 이들 형제들은 각기 따로,
홀로 기차 여행을 즐기는 대표
적인 방랑자들이지만, 이번 음
반에서는 같은 시간, 한 기차에
올라탔다. <명사산>으로 가는

사막의 기차에... 홍대앞 골목에서 평화의 사절로 노래하
는, 우여곡절의 아시아인인 사토 유키에 (록그룹 곱창전골
의 리더)가 부른 <마지막 기차>는 일본사람이 한국말을 배
워 자작시로 노래한, 의미있는 곡이다. 더구나 세계 어디
나 마지막 기차에서는 하나같이 이러한 풍경이라니... 사
는 일이 별다른가. 때문에, 평화는 인류의 일상이어야 마
땅하다. <기차 여행>은 평화와 소통, 이해와 관용을 주문
한다. 북한 가수 이선주와 에디 리더가 함께 부른 자장가
Stars are Rising은, 그간 임의진의 선곡 음반이 보여준,
말초적인 로망에만 머무르지 않는, <개인적 삶과 사회 공
동체의 진화>를 꾀하는 장엄한 기원이 담겨 있는 곡이다.
대자유, 평화, 생명, 분단을 넘어선 통일로 가는 기차를 우

리는 잊을 수 없다. 이 노래를 듣다가 북쪽으로 난 창문을
내다보면 돌도르르 눈물방울이 떨어진다. 자신의 선곡 음
반마다 노래 한소절씩 꼭 담고 있는 임의진은, 변함없이
집시 가수의 이채로운 목청으로 노래 한국을 선물한다. 김
광석의 대표곡 중의 하나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해금
과 잔잔한 기타 선율을 배경으로 읊조리듯 부른다. 레오
페레, 로드 맥퀸, 실비오 로드리게스 등이 그러하듯 시를
 읊고 시를 사는 방랑악사는 노래를 기교가 아닌 정신, 혼
으로 부른다. 그밖에도, 쿠바와 브라질, 프랑스를 떠도는
집시 가수들의 저릿저릿한 노래들이 매복해있다. <기차
여행>은 트랙의 끝으로 갈수록 강렬하고 매혹적이다. 그
레이트 레익 스위머의 I Could Be Noting에서 망울망을
거리는 음성, 쿠바 음유시인 사라 곤잘레스가 자국눈처럼
만발치에 떨어지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내
게 드리운 손길> Quien me tienda la mano al pasar 까
지, 듣는 이의 두눈을 짓무르게 만든다. 손수건을 꺼내 눈
물을 닦다 보면 어느새 기차는 종착역에 닿아 있을 것이
고, 다음번 제2탄 <비행기 여행 BY AIRPLANE>을 기대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게 될 것이다.

*떠돌이별 임의진의 기차 여행 BY TRAIN 수록곡

- 01 판초 비야 Pancho Villa | Mark Kozelek & Sun Kil Moon Band
- 02 500miles | The Innocence Mission
- 03 Street Car | Hayden
- 04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
Ночь юВьюжило Да Кружило | 라이사 누르무하메토티바
- 05 돌아오라 소렌토로 Torna a Surriento | 김두수 Doo Soo
- 06 귀부인 Peribanou | A. Kayaloglou
- 07 체 게바라여! 영원하라
Hasta Siempre Comandante | (쿠바를 떠도는 집시) Son Norteno & Pina Colada
- 08 Rainbows | Twana Rhodes
- 09 명사산을 오르다 (박남준 시낭송) | Oh! Quand Je Dors(P.List 1811-1886)
Trumpet 연주 Timofei Dokshitser
- 10 이방인 Le Meteque |

- (프랑스를 떠도는 집시) Jean Marie
- 11 One Heart, Three Voices | David Linx, Fay Claassen, Maria Pia De Vito
- 12 Stars are Rising | 이선주(북한 가수) & Edi Reader
- 13 I Pened My Heart | Zulya
- 14 Black Orfeus | (브라질을 떠도는 집시) Anieszka Tosak
- 15 마지막 기차, 주정뱅이의 노래 Last Train | Sato Ukie & 곱창전골
- 16 I Could Be Noting | Great Lake Swimmers
- 17 Quien me tienda la mano al pasar | Sara Gonzalez
- 18 바람이 불어오는 곳 | 임의진

*떠돌이별 임의진 디스코그래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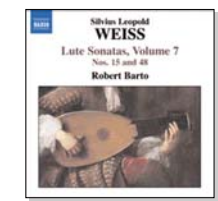
- 독집 음반 : <하얀새>, <저물 무렵/ 근간>
- 선곡 음반 : <여행자의 노래 1-2>, <보헤미안>, <산>, <기차 여행>, <쿠바 여행/ 근간>
- 기획 음반 : <나오미 & 고로>, <사비나 야나투>, <이노센스 미션>, 수니 <내 가슴에 달이 있다>, <프리실라 허스만/ 근간>
- 참여 음반 : <김두수 창개구리 라이브>
- 저서 : 시집 <사랑/ 샹터> 수필집 <참꽃 피는 마을/ 이레>, <종소리/이레>, <마음의 풍경/이레>, <인연/ 열림원, 근간> 동화 <예수동화 1-2/ 파랑새 어린이>
- 공연 : 무등산 풍경소리 음악회 (중심사) 초대 사회자, 인권 생명환경 음악회 다수 참여, 자선공연 <임의진과 친구들의 사랑콘서트/ 샹터파랑새 극장> 등

홈페이지/ www.sunmoodang.com



www.naxos.com

Naxos New Releases



Naxos 8.557806

바이스 : 류트 소나타 7집 (15, 48번)

로베르트 바르토(류트)
승승장구 중인 로베르트 바르토의 바이스 전집의 일곱번째 음반. 바이스는 18세기 독일의 가장 유명한 음악가이자 유럽 최고의 류티스트로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었다. 본 음반에 수록된 소나타 15번은 작곡가가 개발한 13현 류트의 넓은 음역을 활용했던 최초의 작품. 최만년의 작품인 소나타 48번은 그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의 하나로 꼽힌다.



Naxos 8.557852

비발디 : 스타바트 마테르, 라우다테 푸에리, 칸타 인 프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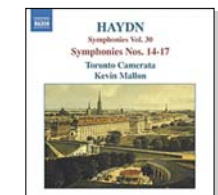
트레이시 스미스 베셋(sop) | 마리언 뉴맨(ms) | 케빈 말론 | 아라디아 앙상블
비발디의 성악작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특히 그가 남긴 종교음악들은 기악음악에 대한 자신의 해박한 지식 위로 남국 특유의 우아하고도 유려한 칸타빌레와 화려한 콜로라투라 패시지가 덧붙여진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다. 본 음반에는 스타바트 마테르를 비롯하여 소프라노와 알토 솔로를 위한 네 편의 아름다운 종교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Naxos 8.557545

스트라이크 업 더 밴드!! (유명 행진곡 컬렉션)

에르케르 요한손 | 왕립 스웨덴 공군 군악대
귀에 익은 유명 행진곡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슈베르트의 군대행진곡, 영화 '코이강의 다리'로 널리 알려진 알포드의 '보기 대령', 운동회 단골 레퍼토리인 바그너의 '쌍두독수리 깃발 아래서', 모 방송국 스포츠 중계 시그널로 귀에 익은 플랑케트의 '생브르와 피즈 연대', 추억의 워너 코믹툰과 함께했던 푸직의 '검투사의 입장' 발트뷔네 콘서트의 영원한 엔딩곡인 린케의 '베를린 기질' 등등을 수록.



Naxos 8.557656

하이드 : 교향곡 14, 15, 16, 17번

케빈 말론 | 토론토 카메라타
본 음반에 수록된 4편의 교향곡은 하이든이 에스테르하지 궁정에 고용되던 첫 해 무렵에 완성되었던 비교적 초기 교향곡들. 18세기 초기 교향곡의 전형과 함께 새로운 경향에 대한 작곡가의 진취적인 개방성 또한 엿볼 수 있다. 절충주의적인 해석에 입각한 케빈 말론과 토론토 카메라타의 단정한 연주가 작곡가의 유쾌한 악상을 한껏 돋보이게 한다.



Naxos 8.570028

칸도쉬킨 : 캐서린 여제 시대의 러시아 바이올린 작품들

아나스타시아 키트루크(바이올린)
글린카의 민족주의 오페라 이전의 러시아 음악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음반에 주목하길 바란다. 칸도쉬킨은 18세기 후반 서구화가 맹렬히 진행되던 시절 캐서린 왕후의 궁정에서 활약했던 러시아 최초의 비르투오조였다. 음반에 수록된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세 곡의 소나타는 바흐, 파가니니, 이자이 등의 작품에 비견될 정도로 훌륭하다. 바이올린을 위한 러시아 옛 민요의 선율 편곡들도 흥미롭다.



Naxos 8.557698

백스 : 클라리넷 소나타, 피아노 트리오, 로망스 외

로버트 플레인(c) | 굴드 피아노 트리오
백스의 뛰어난 음악적 감각은 대편성의 교향곡들에서 뿐만 아니라 아가자기한 실내악 작품들에서도 큰 위력을 드러낸다. 본 음반에는 흡사 프랑스 인상파 음악을 연상케하는 그의 가장 유명한 실내악 작품인 피아노트리오, 우수에 젖은 클라리넷 소나타 D장조, 청년기의 풋풋함이 담긴 로망스와 클라리넷 소나타 E장조 등이 수록되었다. 웨일즈 출신의 영국의 정상급 클라리넷 주자 로버트 플레인이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7679

파르티투르부흐 (17세기 독일 궁정의 기악 작품들)

앙상블 에코 두 다뉴브
파르티투르부흐는 야콥 루트비히가 고타의 아우구스트 공작을 위해 수집한 17세기 독일 바이올린 레퍼토리를 모은 작품집. 최근 홀로웨이의 음반을 통해 유명해진 베르탈리의 치아콘나를 비롯하여, 슈멜처의 소나타 바리아타 등의 독특한 바로크 바이올린 명작들을 만날 수 있다. 베르탈리, 카프리코르누스, 슈니텔바흐의 치아콘나를 비교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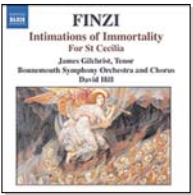


2 CD SET

베리오 : 세쿠엔차 전곡 (1-14번) (3CD)

보리스 베르만(pf) | 노라 술만(f) | 재스퍼 우드(vn) 외

2003년 세상을 떠난 현대음악의 거목 베리오. '세쿠엔차'는 그가 34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치면서 같고 다들었던 기념비적인 연작이다. 목소리와 13종의 다양한 악기들의 독주를 위해 완성된 이 시리즈는 각 연주매체들의 상식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주법과 유사 폴리포니에 대한 다양한 실험성이 덧붙여진 혁신적인 창조물들이다. 2002년 완성된 마지막 14번은 물론 7번과 9번의 이중 버전들까지 완결한 최초의 전곡음반.



Naxos 8.557863

핀치 : 영생의 조짐들, 성 세실리아를 위한 송가

제임스 질크리스트(te) | 데이비드 힐 | 몬버사 심포니 & 합창단
제럴드 핀치는 20세기 영국 가곡과 합창음악에 큰 기여를 했던 인물. 그의 송가 '영생의 조짐'은 워즈워드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부터의 영생의 조짐'에 곡을 붙인 것으로 드라마틱한 감동을 방대한 스케일로 표현하였다. 대편성 합창곡 애호가라면 이 작품에 주목해도 좋을 것이다. 세실리아를 위한 송가는 영국 종교음악의 전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작품.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테니 제임스 질크리스트가 참여하였다.



Naxos 8.559261

세션스 : 현악사중주, 현악오중주

더 그룹 포 컨템포러리 뮤직
로저 세션스(1896-1985)는 20세기 미국음악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인물이다. 코플랜드와 함께 현대음악 연주회 시리즈인 코플랜드-세션스 콘서트를 시작했고, 프린스턴, 버클리, 줄리어드에서 수많은 후진들을 양성했던 명교수였다. 그는 다성음악기법과 비대칭 리듬 등의 엄격한 음악어법을 자신의 작품들에 적용하였는데, 음반에 수록된 실내악곡들 역시 작곡가의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다.



Naxos 8.559278



Naxos 8.559444



Naxos 8.557850

로렘 : 플루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제프리 칸너(fl) | 필립 켄트(vn) | 호세 세레브리에르 |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네드 로렘(1923년생)은 미국현대음악계를 대표하는 현존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던 업쇼, 토마스 햄슨 등의 정상급 기수들이 그의 가곡들을 즐겨 노래해왔고, 3곡의 교향곡을 비롯한 관현악 장르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조성체계에 입각한 바이올린협주곡은 이미 기돈 크레머의 음반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작품. 최신작인 플루트협주곡은 작품을 헌정받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수석 제프리 칸너가 직접 연주를 맡았다.

자이몬트 :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안식일 저녁을 위한 전례

제임스 막달레나(bass) | 제러드 슈워츠 |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외

주디스 자이몬트(1945년생)는 독특한 음악스타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여류작곡가다. 본 음반에는 독창자, 합창단 그리고 관현악단을 위한 안식일 저녁 전례음악의 아름다운 콘서트 버전과 함께 구약의 유명한 이야기를 극적으로 묘사한 음악드라마 '아브라함과 이삭', 현악사중주 반주의 성악곡 '발로의 여인', 제목 그대로 평온한 한 순간을 만드는 '새해를 위한 명상곡'을 담았다.

프랑켈 : 늑대인간의 저주, 그물, 죄수 외

칼 데이비스 |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영국 출신의 벤자민 프랑켈(1906-73)은 전쟁영화의 고전 '발지대전투'의 영화음악으로 널리 알려진 작곡가이다. 그 외에도 '흰 양복의 사나이', '죄수', '일곱번째 베일', '늑대인간의 저주'와 같은 영화들의 음악을 담당했으며, 8편의 교향곡을 완성하는 등 정통 클래식 작곡가로서도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 본 음반에는 '늑대인간의 저주' (1958년)과 '죄수' (1955년)를 중심으로 그의 고전적인 영화음악들이 수록되었다.

브루흐 : 바이올린협주곡 1번, 로망스, 콘체르트스틱

막심 페도토프(vn) |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스코틀랜드 환상곡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페도토프, 야블론스키 콤비가 작곡가의 가장 유명한 협주곡에 도전하였다. 모스크바 국립음악원과 러시아 뮤직아카데미에서 많은 후학을 길러낸 명교사이며, 연주가로서도 '인민예술가'의 영예를 획득했던 페도토프의 명인기가 로맨틱 협주곡의 대명사와 같은 이 작품의 아름다움을 한껏 부각시킨다.



Naxos 8.557689



Naxos 8.557969

17세기 이베리아, 아프리카-브라질 음악들

양상블 반사

17세기 식민지 시절 대서양 양단의 이국적인 민속음악들을 담은 흥미로운 음반. 특히 노예들의 입을 통해 브라질로 전해진 아프리카 전통음악의 독특한 영향이 인상적이다. 쿵베, 쿠반코, 사람베크, 간둠, 카니라오 등등의 토속적인 리듬의 춤곡들과 더불어 토속적인 정취가 물씬 배어나오는 성악곡들이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가능케 한다. 고음악 애호가는 물론 월드뮤직 애호가들에게도 강력 추천한다.



Naxos 8.557796

JS 바흐 : 푸가의 기법 BWV1080

세바스티앵 기요(하프시코드)

푸가의 기법'은 바흐의 미완성 유작이자 푸가에 대한 일생의 경험과 노후를 집대성했던 작품으로, 작곡가가 악기에 대한 지정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양한 악기편성으로 연주되어왔다. 본 음반에서는 하프시코드 독주로 이 위대한 걸작에 도전하였다. 세바스티앵 기요는 아스페렌의 제자로 1997년 브뤼헤 콩쿠르의 2등상을 차지했던 실력과 연주자다.



Naxos 8.557452

크라우스 : 독일가곡 전곡

비르기트 슈타인베르거(sop) | 마르틴 훔멜(bar) | 글렌 윌슨(pf)

독일 출신의 요제프 마르틴 크라우스(1756-1792)는 모차르트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로 활동시기의 대부분을 스웨덴에서 보냈다. 다수의 교향곡들이 이미 낙소스의 18세기 교향곡 시리즈를 통해 선보인 바 있다. 그는 계몽시대 독일 시에 곡을 붙인 소수의 리트들을 남겼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친근한 선율들과 마치 슈베르트의 시대를 예견하는 듯한 다양한 개성들이 흥미롭다.



Naxos 8.557734

윌란 : 하늘 왕국에서 (찬송가와 모테트)

조셉 슈너(te) | 매튜 라킨(org) | 노엘 에디슨 | 엘로라 페스티벌 싱어즈

영국 출신의 캐나다 작곡가 힐리 윌란(1880-1968)은 일생을 오르간 음악과 종교합창곡에 헌신했던 인물이다. 그의 종교곡들에서는 마치 러더의 작품과도 같은 평온함과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한국교회의 찬송가 33장 '온 천하 만물 우리러'로 불리는 'ye watchers & ye holy ones'의 편곡, 포레를 연상케하는 미사 브레비스 등의 주옥같은 종교합창곡들을 엘로라 페스티벌 싱어즈의 투명한 음정으로 담았다.



Naxos 8.570130

잔니니 : 교향곡 3번, 전주와 알레그로, 변주와 푸가 외

툼 베넷 | 유니버시티 오브 휴스턴 윈드 앙상블

이탈리아계 미국 작곡가인 비토리오 잔니니(1903-66)는 오페라를 비롯한 성악장르와 콘서트 밴드를 위한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관악밴드를 위한 교향곡 3번은 작곡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의 하나로 초연 이후 짧은 시간안에 미국 스쿨밴드들의 인기 레퍼토리로 정착했던 작품이다. 관악앙상블의 색다른 묘미를 만끽하게 하는 음반.

도만 : 피아노 소나타 1, 3번, 악흥의 순간, 아제르바이잔 춤곡

엘리란 아브니(피아노)

신세대 유대계 미국작곡가인 아브너 도만(1975년생)은 25세 되던 해에 최연소로 이스라엘 수상상을 수상하면서 유대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다. 음반에 수록된 그의 피아노 작품들은 이스라엘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다. 유대 전통음악의 영향, 중동 일대의 이국적인 정취, 미국 재즈의 즉흥성, 그리고 아방가르드적인 실험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Naxos 8.579001



Naxos 8.557759

필리핀 파퓰러 기타 뮤직

릭 익커드(기타)

필리핀의 음악은 이 나라의 굴곡진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다. 수많은 섬들과 140여 부족들,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배, 인근 인도네시아 가믈란 음악의 영향 등이 이 나라의 음악 속에 혼재되었다. 이 음반의 수록곡들에서는 친근하게 다가오는 선율들 아래로 플라멩고와 같은 스페인의 영향과 블루스, 포크, 재즈와 같은 미국의 대중음악들의 편린도 함께 느껴진다.



Naxos 8.557968

하이든 : 피아노 소나타 43, 44, 47번

레이첼 허드(포르테피아노)

하이든이 남긴 52편의 건반소나타들은 건반악기와 소나타 형식 양쪽모두가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었던 무렵에 완성된 것들이다. 하이든의 초기 소나타들은 하프시코드를 염두에 두고 완성된 것들이나 포르테피아노로 연주했을 때도 그 감흥의 강도는 변함이 없다. 레이첼 허드는 1800년 무렵 요한 산츠가 제작한 포르테피아노의 훌륭한 복제품을 사용하여 이 음반을 완성하였다.



Naxos 8.660116-17

베를리오즈 : 파우스트의 천벌 (2CD)

마리 앙주 토도로비츠(마르게리트) | 마이클 메이어스(파우스트) | 알렉 베른헤스(메피스토펠) | 장 클로드 카자드쉬 | 뮐 국립 교향악단

괴테의 명저에 기반을 둔 베를리오즈의 걸작 오페라.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 박사의 파멸과 마르게리트의 범죄와 구원이 작곡가의 혁신적인 관현악법을 토대로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전곡 곳곳에 라코치행진곡, 도깨비불의 미뉴에트, 요정의 춤과 같은 유명한 선율들이 자리 잡고 있다.



www.naxos.com

Naxos Historical, Jazz Legends, Musicals, Nostalgia



Naxos 8.110996

모차르트 : 교향곡 40번 / 베토벤: 바이올린협주곡

에후디 메뉴인 /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 빈 필하모닉, 루체른 페스티벌

1947년 루체른 페스티벌을 지휘하여 메뉴인을 반주한 푸르트벵글러의 베토벤 바이올린협주곡은 거장의 전후 첫 스튜디오 레코딩이자 자신의 대표적인 협주곡 녹음의 하나로 손꼽히는 명연이다. 1948년 빈 필을 지휘한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역시 열기와 기백으로 가득한 호쾌한 연주다.



Naxos 8.111128-31

바그너 :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1950-51)

파울 쇠플러, 힐데 귀덴, 군터 트렘토프, 칼 뢰호, 오토 에델만, 안톤 데르모타
한스 크나퍼츠부슈 /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 /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크나퍼츠부슈의 역사적인 1950-51년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가 드디어 낙소스를 통해 복각되었다. 1950년대를 대표하는 한스 작스였던 파울 쇠플러를 비롯하여 힐데 귀덴, 오토 에델만, 안톤 데르모타 등 당대의 명가수들이 참여했던 진정한 의미의 '명가수'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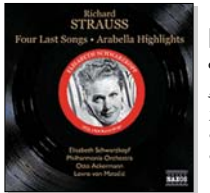
Naxos 8.111036-37

2 CD SET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박쥐 (1955년)

니콜라이 갱타,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헬무트 크렘스, 에리히 쿤츠, 리타 슈트라이히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 필하모니아

슈바르츠코프, 갱타, 슈트라이히, 쿤츠... 이 빛나는 이름들에 더하여 지휘봉을 잡은 이는 다름 아닌 카라얀. 역사상 이보다 더 화려한 캐스팅의 '박쥐'도 없었을 것이다. 부록으로 엘리자베트 슈만, 로테 레만, 리처드 타우버 등이 노래한 박쥐의 히스토리컬 레코딩의 단편들이 함께 제공된다.



Naxos 8.111145

R 슈트라우스 : 4개의 마지막 노래(1953), 아라벨라 발췌(1954)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 오토 악커만, 로브로 폰 마타치치 / 필하모니아

슈트라우스의 위대한 연가곡 '4개의 마지막 노래'와 슈바르츠코프라는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동의어로 여겨질 것이다. 63년 조지 셀과의 녹음이 워낙 유명하지만, 이 가수의 전성기시절에 보여준 유려한 가창을 경험할 수 있는 악커만과 함께했던 53년 녹음 역시 역사적인 명연의 하나로 부족함이 없다. 거장 마타치치와 호흡을 맞추었던 오페라 '아라벨라'의 하이라이트가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111088

세고비아가 연주하는 바흐의 사콘느 (1946, 1949년 녹음)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 기타협주곡 / 폰세: 소나타 메리디오날 / 빌라로보스: 연습곡 /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편곡, 사콘느 외

세고비아가 연주하는 바흐의 위대한 작품들. 류트 모음곡과 전주곡, 그리고 무반주 첼로 모음곡의 일부와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의 유명한 사콘느를 기타를 위해 직접 편곡 연주하였다. 여기에 세고비아를 위해 완성된 폰세의 모음곡과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의 협주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111102

베나미노 질리 에디션 13집 : 1947-49 런던 레코딩

고다르: 자장가 / 조르나노: 카로 미오 벤 / 몬테베르디, 칼라라, 스카를라티, 헨델, 보논치니 등의 바로크 성악곡

바로크 음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지 않던 40년대 후반에 당대 최고의 성악가로 군림하던 질리가 몬테베르디, 칼라라, 스카를라티, 보논치니 등의 다수의 바로크 성악곡들을 녹음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더불어 너무나 친근한 조르다노의 카로 미오 벤과 고다르의 자장가를 만날 수 있다.



Naxos 8.110330

존 맥코맥 에디션 3집 : 1912-13 어쿠스틱 레코딩

토스타: 나의 꿈, 보이토: 메피스토펠레 중 사랑스런 나의 집, 비제: 진주조개잡이 중 방금 들리 그대 목소리 외

20세기 초의 오페라 스타였던 존 맥코맥은 바쁜 오페라 캐리어 틈틈이 작은 무대에서 고향 아일랜드의 민요를 비롯한 소품들을 즐겨 불렀었다. 본 음반에는 그가 즐겨 불렀던 아일랜드 민요를 비롯한 당시의 대중적인 노래들과 더불어 리릭의 극을 느끼게되는 비제의 '진주조개잡이' 중 '방금 들리 그대 목소리'를 담았다.



Naxos 8.111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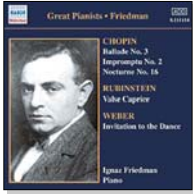
엘리자베트 슈만 독일 리트 레코딩 (1930-38)

슈만, 브람스, 멘델스존의 가곡들

엘리자베트 슈만은 빈 국립오페라의 히로인으로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시절에도 독일 리트에 대해 꾸준히 열정을 기울여왔다. 이 음반은 2차대전 개전 직전 그가 빈에서 남긴 마지막 리트 녹음들을 간추렸다. 슈만의 '호두나무', 멘델스존의 '노래의 나래 위에', 브람스의 '나이트िंग게일' 등의 귀에 익은 선율들이 슈만의 은빛 목소리를 타고 흐른다.



Naxos 8.111111



Naxos 8.111114



Naxos 8.111120



Naxos 8.120825



Naxos 8.120829



Naxos 8.120792

모차르트 : 피아노협주곡 9번(1936)

베토벤 : 피아노협주곡 1번(1937) / 리스트 : 피아노협주곡 1번(1932)

발터 기제킹 / 한스 로스바우트 / 베를린 슈타츠키펠레(모차르트, 베토벤) / 헨리 우드 / 런던 필하모닉(리스트)
낙소스를 통해 복각되는 기제킹의 두 번째 음반. 2차대전 이전에 녹음한 세 협주곡을 담았다. 로스바우트와 협연한 모차르트와 베토벤에서는 섬세한 연주력이, 헨리 우드와 협연한 리스트에서는 불꽃같은 열정과 화려한 기교가 두드러진다.

이그나츠 프리드만 5집 : 1933-36 잉글리스 콜롬비아 레코딩

베바: 무도회의 초대 / 모즈코프스키: 세레나타 / 드보르작: 유모레스크 / 파데레프스키: 미뉴엣 / 루빈시타인: 발스 카프리스 / 슈베르트: 군대행진곡 / 쇼팽: 발라드 3번 외

프리드만 에디션의 마지막 음반. 영국 콜롬비아 레코딩과 더불어 미출반된 78회전반에서 발췌한 4트랙과 파데레프스키에 대한 프라드만의 육성인터뷰가 보너스로 수록되었다. 해롤드 손버그가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쇼팽의 야상곡'이라고 평했던 야상곡 16번을 바로 이 음반에서 만날 수 있다.

피아노의 여인들: 위대한 여류 피아니스트들

마르게리트 롱, 미라 헤스, 모라 립파니, 해리엇 코헨, 가비 카자드쉬, 사리 비로, 마리 노벨로, 레이 레브, 에일린 조이스 외
자크 티보의 환상적인 파트너였던 마르그리트 롱, 멜바의 전속피아니스트 마벨 본, 전설이 되어버린 미라 헤스, 위대한 바흐 연주자 해리엇 코헨, 레세티츠키의 마지막 제자 마리 노벨로, 로베르 카자드쉬의 부인 가비 카자드쉬, 작년 세상을 떠난 모라 립파니 등 20세기 초중반에 활약했던 22명의 여류피아니스트들의 연주들을 모았다.

잭 티가든 Vol.2 : It's Time For T

잭 티가든, 베니 굿맨, 레드 니콜스, 프랭키 트럼바우어 등등

3,40년대 트럼펫에 루이 암스트롱이 있었다면 트럼본에는 잭 티가든이 있었다.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타 일리스트의 한 사람이었던 그는 트럼본의 중저역을 멋지게 활용한 부드러운 연주로 큰 인기를 누렸으며, 또한 스탠 게츠를 발굴해낸 장본인이기도 했다. 블루스의 고전 'St james Infirmary'를 비롯한 전성기시절의 히트곡들을 담았다.

Say It Isn't So : 어빙 베를린의 히트송들

빙 크로스비, 프레드 아스테어, 알 홀츠, 루디 발리, 메리 마틴, 에텔 머먼 외

어빙 베를린은 엘비스 프레슬리, 존 레논 등과 함께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죽어서도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 10인'에 선정될 정도로 범세계적인 히트송들의 주인공이다. 매년 12월이면 지구 전역에서 울려 퍼지는 빙 크로스비의 히트송 '화이트 크리스마스', 미국의 제2의 국가인 'God bless America' 등등 그의 대표적인 히트송들을 간추렸다.

뮤지컬 <왕과 나>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캐스팅, 1951년 스튜디오 레코딩, 1954년 런던 캐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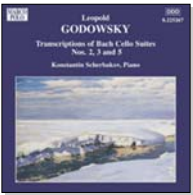
울 브린너, 제르트루드 로렌스, 다이나 쇼어, 로버트 메릴, 허버트 롬, 발레리 홀슨

동명의 일본 영화로 한층 더 친숙해진 추억의 히트송 'Shall We Dance'가 삽입된 뮤지컬의 고전 '왕과 나'. 게르트루트 로렌스와 울 브린너가 출연한 1951년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캐스팅, 다이나 쇼어와 명 바리톤 로버트 메릴이 참여한 스튜디오 레코딩, 그리고 1954년 런던 캐스팅 세 가지 버전을 함께 만난다.



www.naxos.com

Marco Polo



Naxos 8.225267

바흐-고도프스키 : 무반주 첼로모음곡 2, 3, 5번 피아노편곡

콘스탄틴 세르바코프, 피아노

20세기 초를 풍미하던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한 사람이었던 고도프스키. 그는 크라이슬러와 마찬가지로 이전 시대의 여러 명곡들을 자신의 악기를 위해 편곡하였다. 그가 편곡한 바흐의 무반주 첼로를 위한 모음곡들은 원곡의 고유한 아취를 고스란히 유지한 상태에서도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전혀 다른 소노리티와도 별다른 어색함 없이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편곡의 묘를 보여준다.



www.dacapo-records.dk

DACAPO



Naxos 8.226033

하메릭 : 레퀴엠, 코랄 심포니 7번

란디 스테네, 소프라노 / 토마스 다우스가르드 /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과 합창단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지만 아스게르 하메릭(1843-1923)은 당대에 꽤나 국제적인 명성을 누렸던 덴마크 작곡가였다. 베를리오즈를 사사했던 그는 피바디음악원장으로 미국 음악계의 발전에 일조를 했었다. 그가 미국시절 초연한 레퀴엠은 대단히 인상적인 작품. 특히 유명한 평성가의 선율을 차용한 '진노의 날'과 스승 베를리오즈의 작품을 빼닮은 '나팔소리'가 흥미롭다. 합창음악의 표현력을 한껏 확장해놓은 코랄심포니 7번 역시 후기낭만시대 합창음악 애호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만한 작품이다.



Naxos 8.226039

뇌르고르드 : 하프와 체임버 앙상블을 위한 작품들

티네 레슬링, 하프 / 카이자 로제 / 에스비에르그 앙상블

페르 뇌르고르드는 카를 닐센 이후 가장 중요한 덴마크 출신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하프는 뇌르고르드의 작품세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악기. 그는 낭만음악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과 또 다른 시각에서 이 악기의 폭넓은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는 하프의 원초적이고도 단순한 속성에 주목하였다. 이 음반에는 하프 솔로를 위한 그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과 더불어 다양한 악기조합 속에서 드러나는 이 악기의 색다른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실내악 작품들이 담겨있다.



Naxos 6.220514

북스테후데 : 오르간 작품집 (Hybrid-SACD)

비네 브린도르프, 오르간

남독일의 파헬렐과 북독일의 북스테후데는 17세기 독일음악계를 양분했던 오르간의 거장들이었다. 특히 북스테후데는 청년 바흐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유명하며,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뤼벡까지 떠나던 도보여행을 떠났던 바흐의 일화는 널리 알려져있다. 본 음반은 5곡의 코랄전주곡을 중심으로 토카타와 칸초네타 등의 다양한 오르간 작품들을 담았다. 작곡가가 가장 고귀한 친구라고 칭했던 오르간제작자 구스타프 뉘벤이 제작한 스토크를 성 게르트루드 교회 오르간의 화려한 사운드가 SACD의 우수한 기술력에 힘입어 강력한 위용을 드러낸다. (일반 포맷 CD와 동일한 가격입니다.)



www.proprius.com

Proprius



Proprius PRSACD2033

성스러운 딸들의 수난곡: 성녀들을 위한 중세찬가 (Hybrid SACD)

복스 실렌티

힐데가르트 폰 빙겐의 신비로운 모노디 성가들을 아끼는 이들이라면 이 음반에 주목해도 좋을 것이다. 복스 실렌티의 두 멤버들이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음성으로 기독교 수난사를 장식했던 여러 성녀들에게 바쳐진 중세 성가들을 노래한다. SACD 포맷으로 옮겨진 프로프리우스의 뛰어난 녹음기술이 인성(人聲)의 아름다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디오파일용으로 크게 환영받을 것이다.



Proprius SCD1137

비르기트 닐슨이 노래하는 유명 성가곡들

구노: 아베마리아 / 프랑크: 생명의 양식 / 아당: 오 홀리 나이트 / 아담스: 홀리 시티 / 맨슨: 기쁘다 구주 오셨네 / 그루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외

2005년 12월 25일 세상을 떠난 스웨덴의 세계적인 바그너 소프라노 비르기트 닐슨. 영원한 이슬데, 영원한 브린힐데로 세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이 위대한 소프라노가 노래한 귀에 익은 성가곡들이 이 음반에 담겨있다. 1963년에 발매된 EP와 1977년에 발매된 LP를 편집한 것으로 CD포맷으로는 처음 선보이는 귀한 음원들이다.



www.membran.net

Quadromania Series(쿼드로매니아 시리즈)

4장이 1장 값! 초엽가 독일음반.
보석처럼 귀중한 히스토리컬 음원.

초엽가 음반들이 침체되어 있는 음반시장에 약간의 혼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2장에 1장 가격'은 너무 흔한 일이 되어 특별히 싸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는가 보다. 세장도 넘어 네 장 정도나 되어야 예전의 2장에 1장 가격을 사는 '바겐의 느낌'이 드는 것인가? 여기 또 하나의 엮가 시리즈 쿼드로매니아가 있다. 독일의 멤브란(Membran)이라는 회사가 2004년부터 내놓고 있는 초엽가 음반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항상 엮가음반을 고를 때에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격대비 음반의 매수에 현혹되어 무작정 구입하면, 듣지도 않는 혹은 들을

수 없는 음반을 충동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음악의 가치나 연주의 질만을 고려한다면 잘 모르는 연주자들이 녹음한 것보다는 히스토리컬 음반에 주목하는 것도 안전하게 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멤브란의 쿼드로매니아 시리즈는 가깝게는 1990년대 음원까지도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20세기 초반의 히스토리컬 음원을 수록했다. 음반에 관심이 있었던 애호가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유명음악가들의 음원들이다. 가격은 4장의 CD, 1장 가격이다. 4장의 CD가 담긴 케이스(슬림 주얼 케이스라고 부른다)가 좀 특별하다. 흔히 사용되던 두꺼운 네 장짜리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한 장

짜리 케이스보다 1.6밀리 정도가 두꺼운 정도. 대충 위에서 보면 1장짜리 케이스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진다. 이 특수 케이스는 '시포티 케이스(Sifoty case)'라고 하는데, 일본과 기술 제휴하여 멤브란사에서 제작했다고 한다.

쿼드로매니아 시리즈는, 재즈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100 타이틀이 넘는 클래식 아이템을 내놓았다. 여기는 그것들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는 공간이다. 다만 몇몇 호기심을 당기는 음반들을 스케치해본다.

슈베르트 가곡집이 보이는데, 테너 카를 에르프 외에 알렉산더 키르니스, 이름가르트 제프리트, 제라르 수제, 유시 비올링, 하인리히 술루스누스 등 전설에 가까운 가수들의 주옥같은 노래들을 담았다. 푸르트벵글러의 음반(Maestro Classico)도 눈에 확 들어온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그랑 파르티타',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미완성', 베토벤의 교향곡 7번,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 스메타나의 몰다우,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을 그의 최 만년 녹음으로 감상할 수 있다. 말러의 거대한 교향곡 4곡을 담은 음반(The Essential Symphonies)은 미트로폴로스가 1940년에 녹음한 교향곡 1번, 멘겔베르크가 1939년에 녹음한 교향곡 4번, 발터가 뉴욕필과 빈필을 지휘한 5번과 9번(1947년, 1938년 녹음)을 담고 있다. 마리아 칼라스의 음반(Primadonna assoluta)은 도니체티, 벨리니, 푸치니, 폰키엘리, 마스카니, 그리고 베르디의 주옥같은 아리아들이 네 장의 CD에 꽉 차있다. 크라이슬러의 음반(Violin Masterworks)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1926년 녹음),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1938년 녹음),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Op.30 No.1(1936년 녹음),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D.574(1928년 녹음),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1928년 녹음),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이중 협주곡, 그리고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1926년 녹음)까지 수록했고, 마지막 음반에는 자신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현악 사중주, 그리고 잘 알려진 '아름다운 로즈마린', '집시여인',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까지 모두 1930년대 음원이다.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9곡을 네 장의 CD에 나눠 담은 음반(Essential String Quartets)의 실내악단은 부다페스트 현악 사중주단과 부슈 사중주단이다. 모두 1930년대, 1940년대 녹음.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음반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제목으로 했다. 바흐의 류트 모음곡을 시작으로 바이올린 소나타, 첼로 모음곡 등을 한

장의 음반에 담았고, 타레가, 그라나도스, 알베니스, 빌라로보스의 꿈결같이 아름다운 명연주들은 둘째 CD에 담겼다. 호로비츠의 음반(Piano Masterworks)은 그가 1930년대, 1940년대에 남긴 녹음들이다. 베토벤의 오리지널 주제 변주곡을 시작으로 모차르트의 소나타, 슈만의 아라베스크, 토카타, 환상소곡, 쇼팽, 멘델스존, 리스트의 명곡, 그리고 CD4에서는 토스카니니와 함께한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앨버트 코츠의 런던 심포니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한다. 바흐의 거대한 종교 교향곡들도 빛난다. 귄터 라민 지휘, 토마스 합창단,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1941년 마태수난곡, 카라얀이 1952년, 53년에 슈바르츠코프, 게다 등과 녹음한 B단조 미사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둘 다 전곡 레코딩이다. 이상 스케치만 했는데도 지금까지 발매된 쿼드로매니아의 10분의 1도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밖에도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레퍼토리들이 즐비하다. 나머지 음반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멤브란 사이트(www.membran.net)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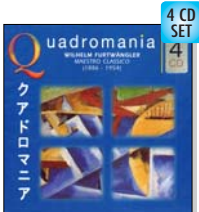
히스토리컬 음원에 대한 가치관이 미약한 애호가들을 위해 약간의 말을 보태본다. 히스토리컬 음반은, 오디오 기기의 음질 향상과 그에 맞물린 고음질 CD의 발매 등 기기 발전,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청력의 퇴조라는 복병을 만나 점점 더 우리의 라이브러리에서 듣고 감상하는 음반이 아니라, 구시대의 유물, 혹은 박물관의 음원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LP시절에 그렇게도 열광하던 히스토리컬 애호가들이 모두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명한 작곡가이며 클래식 음악 애호가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음반 수집가이기도 했던 나운영 선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옛 음반으로는 음악을 듣고 요즘 음반으로는 소리를 듣는다' 현재나 미래의 가치를 폄하하고 절망한다는 오해를 하면서 그의 말을 거부할 사람도 있겠지만, 진정 그의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진정한 음악애호가인 것이 아닐 것이다. 요즘 음악이 음악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더 진지하게 예술에 임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예술이 놀이의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호소하는 예술의 차원으로 승격하려면 당연히 갖춰야 할 것이 예술행위의 진지함이다. 지금보다는 옛날의 예술행위가 더 진지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membran 222167-444

슈베르트 가곡 예술

CD1에는 전설적인 테너 카를 에르프의 노래로 <방랑자의 밤노래II>, <고독>, <아베마리아>, <달빛의 방랑자>, <실비아에게> 등 아름다운 슈베르트의 가곡들을 실었다. CD2에는 알렉산더 키프니스, 이름가르트 제프리트, 제라르 수제의 노래로 <바위위의 목동>, <물레자는 그레트헨>, <음악에게>, <들장미>, <마왕>, <송어>, <죽음과 소녀>가 불러진다. CD3에서는 티아나 램니츠, 유시 비올링이 <자장가>, <프로메테우스> 등의 노래를 불러준다. 마지막 CD에는 바리톤 하인리히 술루스누스의 목적인 노래들이다. <방랑자의 밤노래I>, <젊은이와 샘물>, <방랑자>, <알린네> 등이 담겼다.



membran 222128-444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 마에스트로 클라시코

20세기 독일의 가장 위대한 지휘자 푸르트벵글러가 남긴 고전 낭만주의 명 음원들을 담았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그랑 파르티타’를 빈 필 관악기 연주자들과 함께한 것도 있고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미완성’은 빈필의 고즈넉한 분위기의 명연이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은 1950년 빈필을 지휘한 것.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명장면을 발췌했다. 세 번째 CD는 빈필을 지휘하여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 스메타나의 몰다우,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을 연주한다. 마지막 CD는 베를린 필의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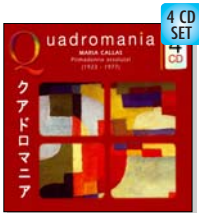
membran 222144-444

말러 : 교향곡의 정수

연주: 미니애폴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욕필, 빈필, 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
지휘: 미트로폴로스, 뎡겔베르크, 발터

브루노 발터의 30, 40년대 말러녹음

말러의 거대한 교향곡 4곡을 각각 1장씩의 CD에 담았다. 1940년 미트로폴로스가 미니애폴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있을 때 녹음한 교향곡 1번, 뎡겔베르크가 1939년에 녹음한 교향곡 4번도 요즘 악단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을 주지만, 역시 최고의 관심사는 브루노 발터의 것이다. 뉴욕필과 빈필을 지휘한 5번과 9번이 실렸는데, 각각 1947년, 1938년 녹음이다.



membran 222118-444

마리아 칼라스 : 프리마돈나 아슬루타!

누구나 인정하는 프리마 돈나의 지존!

마리아 칼라스가 남긴 아름다운 오페라 아리아 및 명장면들만을 수록한 음반. 1949년 녹음이 하나, 나머지는 모두 1950년대 초반 그녀의 최전성기의 유명한 음원들이다. 도니체티의 루치아, 벨리니의 청교도 및 노르마, 푸치니의 마농레스코, 라 보엠, 나비부인, 차니 스카키, 수녀 안젤리카, 바그너의 파르지팔 및 트리스탄과 이졸데,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세 장의 CD에, 나머지 한 장은 모두 베르디의 주옥같은 아리아들이 네 장의 CD에 꼭 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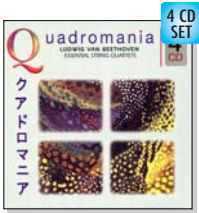
membran 222141-444

크라이슬러 : 바이올린 걸작선

연주: 프리츠 크라이슬러(바이올린)

크라이슬러 예술의 극치를 만끽할 수 있는 걸작선집.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1926년 녹음),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1938년 녹음),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Op.30 No.1(1936년 녹음),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D.574(1928년 녹음),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1928년 녹음),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이중 협주곡, 그리고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1926년 녹음)들을 실었다. 마지막 음반에는 자신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현악 사중주, 그리고 잘 알려진 ‘아름다운 로즈마린’, ‘집시여인’,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등 바이올린 소품들까지 모두 1930년대의 가슴 뭉클한 음원들이다.



membran 222111-444

베토벤 : 현악 사중주의 정수

연주: 부다페스트 현악 사중주단, 부슈 사중주단

전설적인 실내악단의 전설적인 음원들!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9곡을 네 장의 CD에 나눠 담은 음반이다. 실내악단은 20세기 초중반의 전설적인 실내악단이었던 부다페스트 현악 사중주단과 부슈 사중주단. 모두 1930년대, 1940년대 녹음. Op.18의 1번을 시작으로 Op.18의 4번, Op.59의 3번 ‘라주모프스키’까지 부다페스트 사중주단 연주이고, 나머지는 11번부터 16번까지 모두 부슈 사중주단의 음원이다. 특히 op.132의 가장 유명한 악장 “병에서 회복된 자가 신에게 보내는 감사의 노래”에서 부슈 사중주단의 깊은 정신성과 혼신의 집중력으로 추구하는 순수음악적 감동은 압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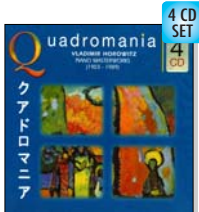
membran 222170-444

안드레스 세고비아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연주: 안드레스 세고비아(기타)

스페인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세고비아의 명곡선

바흐의 류트 모음곡을 시작으로 바이올린 소나타, 첼로 모음곡 등을 한 장의 음반에 담았고, 타레가, 그라나도스, 알베니스, 빌라로보스의 꿈결같이 아름다운 명연주들은 둘째 CD에 담겼다. 모두 보석 같은 레퍼토리들이지만, 네 번째 CD의 페데리코 모레노 토로바의 음악이 특히 인상적이다. 태양처럼 빛나는 광채를 띠고 있고, 특이한 리듬과 야무진 선율이 일품이다.



membran 222138-444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 피아노 걸작선

연주: 블라디미르 호로비츠(피아노)

호로비츠가 1930년대, 1940년대에 남긴 주옥같은 피아노 음원들!

베토벤의 오리지널 주제 변주곡을 시작으로 모차르트의 소나타 K.331, 332, 슈만의 아라베스크, 토카타, 환상 소곡, 쇼팽의 녹턴, 마주르카, 연습곡을 실었다. CD3에는 프로코피예프 토카타,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카발레프스키의 피아노 소나타 등을 연주한다. CD4에서는 그의 명 협주곡 음원이다. 토스카니니와 함께한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앨버트 코츠의 런던 심포니와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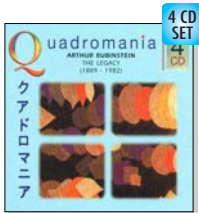
membran 222106-444

바흐 : 마태수난곡 / B단조 미사

연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토마스교회 합창단,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등
지휘: 귄터 라민 / 카란얀

역사적인 귄터 라민의 1941년 마태수난곡 녹음!

귄터 라민은 1940년에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가 되어 그 다음해에 이 역사적인 마태수난곡 녹음을 단행했다. 주지하듯이 바흐가 칸토르로 봉직했고 마태수난곡을 연주했던 합창단이 성토마스 교회의 합창단,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던 이곡을 멘델스존이 부활 연주했던 악단이 바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다. 거기다가 복음사가역의 카를 에르프, 예수역의 게르하르트 뤼슈... 이보다 귀중한 마태수난곡은 없다! 짝을 이룬 것은 카라얀이 1952년, 1953년에 슈바르츠코프, 게타 등과 녹음한 B단조 미사.



membran 222163-444

아서 루빈스타인의 유산

폴란드 출신의 미국 피아니스트 아서 루빈스타인의 화려한 음원들

바비롤리/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1번, 스케르초 전곡, 자장가까지 담은 것이 CD1이다. CD2에는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프로아르테 사중주단 멤버)와 슈베르트의 피아노 삼중주(하이페츠, 포이아먼)가 유성기소리처럼 아련한 환상으로 들린다. 루빈스타인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은 LP시절부터 많은 인기를 누렸다. 라인스도르프의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64년 녹음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음반에는 그보다 훨씬 젊었을 때 녹음인 1947년 비침의 로열 필파의 것이다. 후반부에는 월광, 열정 소나타까지 필업되었고, 마지막 CD에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리스트의 ‘사랑의 꿈’, ‘헝가리언 랩소디’, 라벨의 ‘쿠프랭의 통보’, 드뷔시 전주곡, 1930년 녹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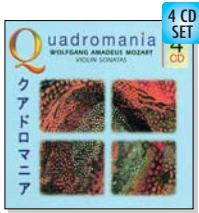


membran 222188-444

비발디 사계 & 바로크 명곡선

바로크 음악의 싱그럽고 풍성한 선율을 만끽할 수 있는 세트.

첫 CD에는 귄터 케르가 지휘하는 독일 마인츠 실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건반 협주곡 1번, 플루트 모음곡2번, 예수는 나의 기쁨, 그리고 칸타타 명곡들을 담았다. 두 번째 음반은 비발디의 사계, 버순 협주곡, 2대의 오보에, 클라리넷, 현악기를 위한 협주곡, 세 번째 CD에는 헨델의 수상음악과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을 각각 시카고 실내 오케스트라, 함부르크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을 수 있다. 네 번째 CD는 파헬렐의 카논,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퍼셀의 관현악 모음곡 ‘아서 왕’, ‘디도와 아에네아스’, 토렐리의 기타 협주곡이 빈 페스티벌 실내 오케스트라의 상쾌한 연주로 담겼다.



membran 222155-444

모차르트 : 바이올린 소나타집

연주: 파우크(바이올린), 프랭클(피아노)

그의 정규 파트너였던 프랭클의 피아노가 무척 아름답다!

헝가리 태생의 영국 바이올리니스트 파우크가 자신의 정규 파트너였던 프랭클과 남긴 녹음이다. 1936년생의 가장 바이올린 연주자이지만 파우크의 음반은 흔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예전에 BBC무지 매거진의 부록 CD로 나와 애호가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기도 했었는데, 이런 시리즈로 묶여 나올 줄이야! 11개의 소나타 외에 변주곡 g단조 K.360까지 실었다. 바이올린도 뛰어난지만 피터 프랭클의 반주부 피아노는 특히 아름답다. 피아노를 주인공으로 바이올린을 반주자로 들어도 감동이 크다!



차이코프스키 : 백조의 호수와 다른 걸작들

차이코프스키의 명곡들 모두 담았다!
에두아르트 반 레모르텔이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백조의 호수', '잠자는 미녀' 모음곡이 연주된다. 유리 시모노프의 지휘, 로열 필름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한다. 두 번째 CD도 시모노프&로열필의 연주다.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서곡과 이탈리아 기상곡, 1812년 서곡, 예프게니 오네긴이 환상적인 음향으로 제공된다. 세 번째 CD에서는 에후디 메뉴인이 지휘하는 로열 필의 연주로 바이올린 협주곡, 우울한 세레나데가 연주된다. 바이올리니스트는 지노 비니코프, 1994년 녹음으로 음향도 상당히 좋다. CD4에는 피아노 작품만 담았다. 미하엘 폰티가 피아노 독주를 위한 '사계' 전곡, 그리고 6개의 소품을 연주한다.



하이든 놀람 교향곡과 다른 걸작들

유명 현악 사중주를 관현악곡으로 들을 수도 있다
쿠르트 잔데를링의 아들 슈테판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로열 필의 연주로 하이든의 교향곡 94번, 100번 '군대'가 연주된다. 1994년 녹음이다. 교향곡 101번 '시계'는 야샤 호렌스타인이 지휘하는 빈 프로 무지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이것만은 1956년 음원이다. CD2에는 교향곡 103번 '큰북연타', 104번 '런던'이 실렸고, CD3에는 트럼펫 협주곡, 오보에 협주곡, 혼 협주곡 2번이 볼프 라인하르트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프로무지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담겼다. CD4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사냥', '황제', '종달새'가 올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현악 사중주 연주가 아니라 로열필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곡이라는 사실. 별미다!

CD Hot Issues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Classicstoday
10/10



리스트: 밤의 찬가

Invocation; Hymne a la Nuit; Wiegenlied; Schlaflos!; Grand solo de concert; Bagatelle sans tonalite; La Noite; Prelude et Marche funebre; Hymne au matin; Prelude et Mort d'Isolde ; En re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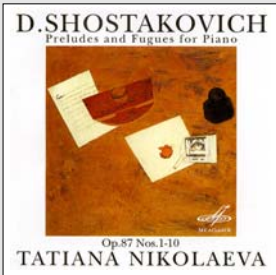
장 에프랑 바부제, 피아노

모자를 벗어라. 진정한 리스트 연주가 나타났다. 장 에프랑 바부제는 완벽한 기교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광대하고 다양한 소노리티와 리스트 음악의 복잡한 이디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낼 수 있는 설득력을 지배하고 있다. 모든 위대한 옛 리스트 연주자들은 텍스처가 다양성과 색채, 적절한 원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트레몰로, 아르페지오, 그리고 선율적인 요소에 대한 배경장치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리스트의 과장된 서정적인 영감들을 성심성의껏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부제는 이러한 비밀들을 알고 있었고, 이들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낸다. 리스트의 두 피아노협주곡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로세스 콘체르트소로는 열정적이고도 영감에 찬 해석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다른 어떤 연주들도 이 신보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쉽게 듣기 힘든 작품인 '밤 (La Noite)' 역시 관현악 버전을 다시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피아니스틱한 마무리와 양식적인 우아함을 자랑한다. 역으로 리스트 후기작의 쓸쓸하고 반기교적인 음악세계 또한 바부제의 상상력을 번뜩이게 한다. 예를 들어 그는 '솔라플로스'의 기괴한 반음계적인 꼬임들을 폴 루이스의 뛰어난 레코딩(HMF)보다 더 유연한 형태로 풀어내간다. 악기 자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으나, 바부제가 같은 레이블에서 라벨 작품집을 녹음할 때 이용했던 1901년산 빈티지 슈타인웨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우 특별한 음반이다. 놓치지 마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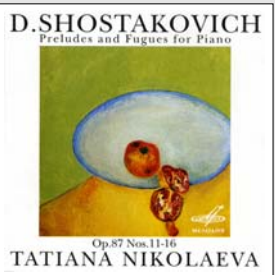
Classicstoday 2006년 2월 3일 - Jed Distl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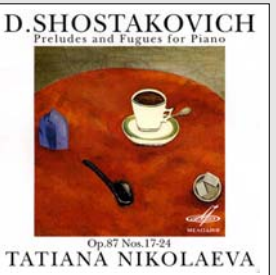
MELODIYA



MEL CD 10 00073



MEL CD 10 00074



MEL CD 10 00075

쇼스타코비치 : 프렐류드와 푸가

타티아나 니콜라예바, 피아노

바흐와 함께 타티아나 니콜라예바 예술의 또 하나의 축이 되는 쇼스타코비치의 음반이다. 1950년말부터 1951년 초까지 불과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완성된 대작 '프렐류드와 푸가'는 흔히 바흐의 평균율곡집과 비교되며, 20세기 중반에 씌어진 폴리포니의 신기원이다.

쇼스타코비치의 '프렐류드와 푸가' 24곡은 니콜라예바와 결코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다. 바흐 서거 200주년 기념 라이프치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니콜라예바의 푸가 연주를 듣고 감동 받은 쇼스타코비치가 그녀에게 새로운 대위법 작품을 쓰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그 후 두 사람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작품이기 때문이다. 1952년의 초연을 니콜라예바가 담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1993년 샌프란시스코 연주 무대에서 쓰러져 숨을 거둔 그녀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도 쇼스타코비치의 프렐류드와 푸가였다.

바흐에게 경도된 쇼스타코비치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난 작품인 만큼 20세기 어법을 쓰되 대위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려 했던 작곡가의 노력을 연주로 표현하는 데 심리적, 육체적 압박감을 많이 받게 되는 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작곡가가 살아 있을 때는 소수의 러시아 피아니스트들만 무대에 올리던 이 곡의 음반도 어느덧 다양해져서, 이제는 재즈 뮤지션인 키스 재릿을 비롯한 많은 피아니스트들의 해석이 등장해있다. 하지만 초연자로서의 권위는 무엇보다 중요한 바, 실황으로 남아 있는 쇼스타코비치 자신의 연주 녹음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예바의 연주는 작곡가의 뜻을 가장 충실히 따른 기준점으로 남아있다.

본 앨범은 1987년 러시아에서의 녹음으로, 이미 30년을 넘기며 꾸준히 연주해 온 레퍼토리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매너리즘을 철저히 차단한 학구적인 접근 방식과 텍스트의 극명한 재현에 노력하는 니콜라예바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정교하지만 꾸밈없이 짙은 내뿜는 듯한 호흡으로 그 구조를 통째로 파악해 낸 푸가의 큰 스케일도 훌륭하며, 확신에 찬 힘 있는 타건은 작은 체구의 여성 피아니스트임을 잊게 해 준다. 또한 다양한 표정의 프렐류드들에서는 유머와 그로테스크, 고통과 밝음을 자유자재로 표현해야 한다고 니콜라예바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까다로운 요소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완성도 높은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연주의 기능적인 면에서도 흠잡을 데 없으며, 여유 있는 진행은 오히려 LP시절의 녹음보다 더욱 안정된 느낌의 테크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김주영 (피아니스트, 음악평론가) 월간 객석 2006년 4월호

천상의 고역을 사랑하는 미모의 여가수

안네 바다 Anne Vada

노르웨이의 가수 가운데 안네 바다는 특히 빼어난 용모로 화제에 오르기도 한 사람이다. 사람들의 더욱 감동시킨 것은 그녀의 빼어난 용모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일치한다는 점.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만 갖춘 것이 아니다. 노르웨이 국립 음악원 출신으로, 정식으로 서양 고전음악을 전공한 탄탄한 실력파다.

지금까지 그녀의 음악인생과 함께한 동반자로 노르웨이의 유명한 작곡가이며 건반악기 연주자인 이베르 클레이베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다. 클레이베는 현재는 그녀의 남편이 되었지만, 안네 바다는 그와 함께 연주 여행을 하면서 왕성한 음악활동을 하고 음반을 냈다. 그녀의 음반은 아직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가장 유명한 음반이라면 역시 노르웨이의 유명한 음반사 히르켈리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생명의 샘(Oy I Livet)' 이란 앨범.

그녀의 가창실력과 음악세계를 응축해놓은 것 같은 이 앨범은 출시되자마자 그야말



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녀의 음악에는 고전음악을 전공한 아티스트답게 클래식한 분위기가 기초로 깔려있다. 물론 오늘날 노르웨이의 많은 가수들이 그렇듯이 팝이나 재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음악을 들려준다. 그녀의 이미지나 매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역을 아주 부드러운 질감으로 뽑아내는 가수. 실제로 그랬다.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녀의 독특하게 고상한 고역은 전 세계 애호가들이나 비평가들의 귀를 단번에 매료시켰다. 지금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 애호가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이지만,, 그녀의 첫 음반에서 천상의 스캇 송 '에로스(Eros)'를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일순간에 마음을 빼앗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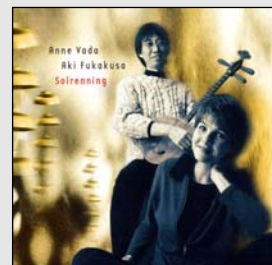
안네 바다의 발매 음반들...



FXCD 155

ANNE VADA : OY I LIVET

국내에서도 히트했던 앨범. 그녀의 대표음반이기도 하다. 특히 스캇 송 '에로스'이 국내 음악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국내에서 라이선스로도 발매되었었지만, 현재는 라이선스는 절판상태이며 오리지널 수입만만 유통된다. 1995년 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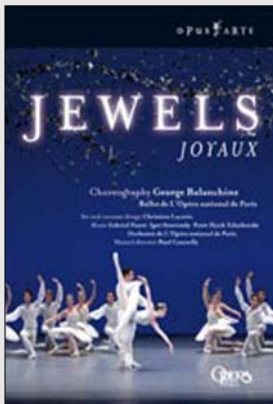
FXCD 185

ANNE VADA : SOLRENNING

안네 바다가 노르웨이 전통 민요를 가지고 독특한 창법으로 해석한 앨범. 일본인 바이올리니스트 아키 푸카쿠사와 함께 일본 전통 피리인 사쿠아치 연주가 함께했다. 말하자면 동-서양의 교집합을 엿볼 수 있는 편곡의 묘미가 살아 있는 인상적인 앨범. 1997년 앨범.



BBC / Opus Arte DVD



BBC/Opus Arte
OA 0951

조지 발란신의 보석

Jewels Joyaux-George Balanchine

가장 영롱하고 귀족적인 발레를 최상의 영상미로 제공한 무대 러시아에서 망명한 후 미국에서 뉴욕 시티 발레단을 창립, 20세기 최고의 안무가로 추앙받는 조지 발란신(1904~83)은 1967년 <보석>을 안무했다. 에메랄드, 루비, 다이아몬드의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보석을 상징하는 빛나는 색상의 의상과 효율적인 무대로 관객을 황홀경으로 이끌어 간다. <보석>은 고전 발레 최고의 영광을 20세기에 재현한 작품이다. 따라서 더없이 귀족적인 기품으로 차고 넘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호사스런 발레단인 파리 오페라 발레는 자신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 작품을 2000년부터 공연했으며 의상과 무대를 한층 더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놀라운 시각적 환희를 안겨준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양대 발레리나인 오렐리 듀퐁과 아네스 레테스뮈를 비롯하여 솔리스트 급만 해도 14명이 출연한 2005년 11월 최신 실황이며 눈부실 정도의 최상급 화질을 제공한다. 발란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파리 오페라 발레의 예술감독과 주역 무용수들이 인터뷰한 55분짜리 다큐멘터리도 제공된다.



BBC/Opus Arte
OA 0934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노라 암셀렘(비올레타), 조세 브로스(알프레도), 레나토 브루손(제로몽), 헤수스 로페즈-코보스(지휘), 테아트로 레알 데 마드리드

눈과 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너무나 매혹적인 라 트라비아타 유럽 오페라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비올레타로 급부상 중인 프랑스 소프라노 노라 암셀렘의 우아한 매력과 아름다운 절창을 만끽할 수 있는 멋진 영상물. 2005년 3월 테아트로 레알 데 마드리드에서의 실황으로, 이 유서 깊은 오페라극장의 새로운 음악 감독으로 임명된 스페인 출신의 거장 헤수스 로페즈-코보스의 데뷔무대이기도 하다. 비올레타의 현신(現身)과도 같은 암셀렘의 뛰어난 열연에 덧붙여, 벨칸토 레퍼토리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출신의 신성 조세 브로스와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관록의 명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적절한 친구 조화 역시 흠잡을 곳이 없다. 파리 고급 사교계와 당시의 퇴폐적인 주색 풍속도를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재현해낸 피에르 루이지 피치의 연출 또한 많은 볼거리들을 안겨준다. 특히 2막의 향락가 밤무대 묘사는 꽤나 선정적이다. 캐스트 갤러리, 일러스트레이티드 시놉시스와 더불어 작품과 프로덕션에 관한 로페즈-코보스, 암셀렘, 브로스, 브루손의 32분 분량의 인터뷰가 보너스로 제공된다.



BBC/Opus Arte
OA 0948

바그너: 지크프리트

하인츠 크루제(지크프리트), 그레이엄 클락(미메), 진닌 알트메이어(브륄힐데), 욘 브뢰헨레르(방랑자), 안네 예방(에르다), 카르스텐 슈타벨(파프너), 헨크 슈미트(알베리히) 하르트무트 헨헨 /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반지 공연사의 굵직한 일화를 그렸던 피에르 오디의 네덜란드 오페라 프로덕션

<니벨룽의 반지>의 세 번째 날 작품인 <지크프리트>는 철없는 소년에 불과했던 지크프리트가 천하를 뒤흔들 초인적인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전체 4부작 중에서 가장 먼저 완성된 작품이기도 하다. 무대와 오케스트라의 독특한 배치, 세계적인 조각가와 일급 의상디자이너의 심미안을 통해 창조된 초현실적인 무대로 반지 공연사의 일화를 그렸던 피에르 오디의 1999년 네덜란드 오페라 프로덕션은 바그너가 의도했던 종합예술의 지향점을 확연히 보여준다. 일본전통의상을 변형한 이시오카의 무대의상과 금속성 가득한 SF적인 가상세계를 건축한 티시핀의 무대가 만들어내는 부조화 속의 조화가 흥미로우며, 무대 전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파프너가 변신한 거대한 용의 모습을 연출해낸 기발한 상상력 또한 감탄할 만하다. 하르트무트 헨헨이 이끄는 로테르담 필하모닉은 스펙터클한 무대에 부합하는 강력한 연주를 들려주며, 하인츠 크루제, 그레이엄 클락, 욘 브뢰헨레르, 진닌 알트메이어, 안네 예방으로 이어지는 일급 가수들의 열연과 열창이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충실하게 만들어준다. 네덜란드 방송(VPRO)에서 제작한 38분 분량의 <지크프리트> 해설 영상물이 보너스로 제공된다.



BBC/Opus Arte
OA F4009

전함 피나포어

Gilbert & Sullivan : Hms Pinafore & Trial by Jury

신나는 뮤지컬 스타일인 길버트-설리반 오페레타 최초의 대형 히트작

19세기 말엽에 영국의 사보이 극장을 흥겹게 달군 길버트-설리반 오페레타는 아직까지도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극장가에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원조라는 평가에 맞게 포복절도할 희극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애뜻한 멜란콜리를 곁들여 감동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전함 피나포어>는 1878년 발표된 이래 길버트-설리반 오페레타의 미래를 보장한 기념비적 작품이며 <팬잔스의 해적>, <미카도>와 함께 길버트-설리반 오페레타의 3대 명작으로 꼽힌다. 인간미 넘치는 선장, 선장의 딸, 그녀와 사랑에 빠진 수병 랄프, 배꼽잡는 해군사령관이 모두 전함 피나포어 선상에 모여 가장 영국적인 이야기와 노래, 춤의 향연을 펼친다. 길버트-설리반 오페레타의 원조인 도일리 카트 오페라의 전통에 따라 <전함 피나포어>와 함께 상연하곤 했던 단막 오페레타 <배심원 평결>을 동시에 수록했다. 호주 뮤지컬의 간판스타인 앤소니 왈로우가 선장을, 호주 최고의 리릭 테너 데이비드 흡슨이 랄프를 부른다.



BBC/Opus Arte
OA F4010

서덜랜드, 파바로티, 보닝 갈라 콘서트

Gala Concert : Sutherland, Pavarotti, Bonyng

벨칸토 오페라 부흥을 이끈 세 슈퍼스타의 1983년 갈라 콘서트

호주 출신의 지휘자요 음악학자인 리처드 보닝은 그의 아내인 세계 최고의 콜로라추라 소프라노 조운 서덜랜드의 파트너로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발굴하여 도니체티와 벨리니, 그리고 베르디 초기의 작품들인 이른바 벨칸토 오페라를 부활시킨 일등 공신이다. 서덜랜드와 파바로티, 그리고 보닝의 공적은 전설적인 마리아 칼라스와 주제페 디 스테파노의 파트너십에 비견될 정도이다. 이 세 사람의 스타가 서덜랜드와 보닝의 조국인 호주에서, 그것도 그 유명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갈라 콘서트를 펼쳤다. 이들이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1983년 실황이며 벨칸토 계열의 오페라 외에 <토스카>,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팔리아지> 등의 후기 낭만시대의 이탈리아 오페라, <베르테르>, <헨릿>, <타이스> 등 프랑스 오페라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펼쳐낸다. 푸짐한 성찬이요, 달콤한 디저트까지 제공하는 놓칠 수 없는 실황이다.



BBC/Opus Arte
OA F4011

오페라 유명 합창곡 모음

Favourite Opera Choruses

오페라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합창곡을 한 장에 총정리

오페라에서 합창은 장엄한 정경, 종교적인 숭고함이나 애국심의 묘사, 집단적 생활상, 투쟁 의지 등을 그려내면서 극적 상황을 강화하거나 반전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사용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은 자체적인 합창단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이 DVD는 <아이다>의 개선행진곡,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일 트로바토레>의 대장간의 합창,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중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나비 부인>중 허밍 코러스를 비롯,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12개의 합창 장면을 선별하여 수록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근거지로 사용하는 호주 오페라단의 실황 중에서 발췌한 것이며, 호주 오페라는 비교적 전통적 연출 방식에 충실한 단체로 정평 있으므로 오페라 초보자에게도 유용한 지침 역할을 할 것이다.



TDK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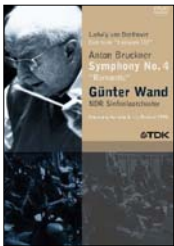
TDK DVWW-OPCLET1

모차르트 : 황제 티토의 자비

미카엘 사데(티토), 베젤리나 카사로바(세스토), 도로테아 뢰슈만(비텔리아), 바바라 보니(세르빌라), 엘리나 가란차(안니오)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 시대의 정상급 네 디바들과 거장 아르농쿠르의 역사적인 만남
2003년 8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연실황. 모차르트가 남긴 마지막 오페라 세리 아인 '황제 티토의 자비'는 그가 세상을 떠난 해인 1791년 보헤미아의 레오폴트 2세의 대관식을 축하하기 위해 완성된 작품이다. 작곡가들의 다른 유명작들에 비해 대중적인 인기는 떨어지는 편이나, 작곡가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율의 아리아들과 충실한 구성의 기악 파트를 이 작품에서 만날 수 있다. 본 영상물은 현재 유럽 오페라계를 호령하고 있는 4명의 최정상급 디바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감상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이 시대 최고의 메조소프라노의 한 사람인 베젤리나 카사로바가 암살자 세스토에 강렬한 카리스마를 부여하였고, 매력적인 용모의 소프라노 도로테아 뢰슈만이 관능적인 비텔리아를 열연한다. 얼마 전 DG와의 전속계약으로 음악계를 술렁거리게 만들었던 엘리나 가란차의 냉철한 안니오, 이름만으로도 신뢰가 가는 바바라 보니의 세르빌라가 최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4명의 여전사들에게 고뇌에 찬 열연으로 당당히 맞서는 미카엘 사데의 티토, 여기에 거장 아르농쿠르의 노련한 지휘가 더해졌으니, 이보다 더 강력한 캐스팅의 오페라 실황을 만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통해 낯익은 잘츠부르크 승마학교(Felsenreitschule)의 구조를 적절히 활용한 엥스 킬리안의 독특한 무대와 심리극적인 요소를 강조한 마르틴 쿨세이의 비범한 연출 또한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La clemenza di Tito



TDK DVWW-COWAND5

브루크너 교향곡 4

NDR 심포니 오케스트라 / 귄터 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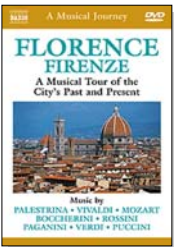
1990 쉘레스비히-홀스타인 페스티벌 실황, 영상으로 남겨진 위대한 거장의 마지막 불꽃들

2002년 2월 14일 90세의 일기로 사망한 20세기 마지막 독일거장 귄터 반트. 노쇠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연히 불타올랐던 그의 위대한 예술혼을 이 숭고한 영상물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브루크너의 교향곡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4번을 보여준다. 이번 영상물들 역시 뮌헨에서 개최되는 쉘레스비히-홀스타인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1990년 브루크너 4번의 기록이다. 후기의 영상으로 옮겨갈수록 거장의 육체적 노화가 점차적으로 심화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악단 전체를 휘어잡는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나이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있는 것처럼 보인다.



www.naxos.com

Naxos 음악여행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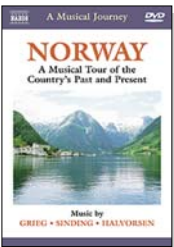


Naxos DVD 2.110513

피렌체 (Florence)

평온한 피렌체 저녁 분위기 일품!

이탈리아 중부의 도시 피렌체를 집중 조명한 영상물.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단테, 마키아벨리, 갈릴레오, 메디치 가문 등 떠오르는 것이 너무도 많은 곳이다. 아르노 강 양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종종 범람을 겪어야 하는 시의 운명, 역사적인 종교 중심지로서의 위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고딕 양식의 두오모 대성당도 스케치하고 있다. 금, 은 세공기술이 발달해 있고 온갖 보석상들이 모여 있는 상업 요지 폰테 베키오(Ponte Vecchio)에서는, 14세기 중반에 세워진 독특한 이중 건축물 폰테 베키오 다리가 아득한 옛 정취에 꼭 빠질 수 있게 해준다. 앵글을 보다 평온하게 잠든 피렌체의 저녁 분위기, 도시 정경은 실로 일품이다. 배경음악도 먼 옛날 팔레스트리나부터 19세기 푸치니까지 이탈리아 음악을 폭넓게 사용했다. 중간 중간 사용된 모차르트의 매혹적인 음악들도 화면을 파스하게 혹은 생동감 넘치게 하는데 일조했다. DTS 서라운드 음향. 53분 32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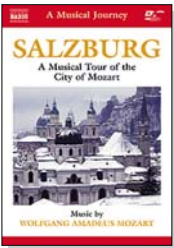


Naxos DVD 2.110515

노르웨이 (Norway)

대작곡가 그리그의 나라, 북구 전원 풍경 압권!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아름다운 항구, 평화로운 공원풍경, 인상적인 건물들부터가 여행자의 흥분을 돋운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 그리그의 고향 베르겐, 그리고 사진에서는 많이 봤던 트롬수겐의 그리그의 집도 생생한 화면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주변의 전원 풍경이 너무도 인상적이다. 나중에는 오슬로로 다시 돌아와 비겔란의 조각 212점이 전시되어 있는 공원을 스케치해주는데, 그 편안한 휴식처를 도저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영상에 그리그의 음악이 쓰이지 않는다면 말도 안 되는 일. 페르귄트의 유명한 음악들이 제 짝 영상과 만나니 아주 좋다. 비요른손, 신딩, 할보르센의 음악들도 여러 감동적인 화면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DTS 서라운드 음향. 55분1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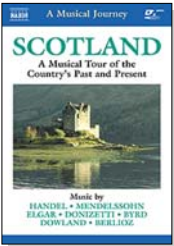


Naxos DVD 2.110517

잘츠부르크 (Salzburg)

아! 모차르트의 고향,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

잘츠부르크 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음악애호가에게는 당연히 모차르트의 고향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또 동화애나 나올 것 같은 그 아름다운 마을을 거닐면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장면들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 잘츠부르크 관광객 대부분은 모차르트를 만나기 위해 혹은 그 유명한 영화의 촬영지를 답사하는 사람일 것이다. 영화의 감동을 반추하고 싶은 사람은 이 영상물도 함께 간직하기 바란다. 미라벨 정원, 모차르트의 생가, 헬브른 성, 성 베드로 묘지와 교회, 잘츠부르크 야경 및 겨울 풍경 등 잘츠부르크를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여행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옥같은 모차르트의 명곡들이 흐른다. DTS 서라운드 음향. 55분 40초



Naxos DVD 2.110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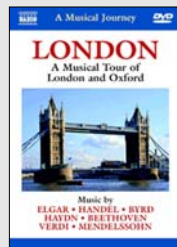
스코틀랜드 (Scotland)

풍경화가 멘델스존이 깊은 감명을 받았던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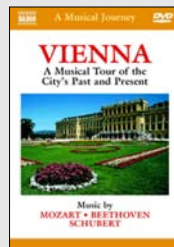
바위가 많은 스코틀랜드 풍광은 영국 본토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풍경 화가이며 작곡가였던 멘델스존은 스코틀랜드 풍광에 매료되어 유명한 교향곡을 남겼다. 또 '핑갈의 동굴' 서곡은 멘델스존이 스코틀랜드 북서쪽 연안 부근 헤브리드스 제도에 있는 핑갈의 동굴을 여행한 후 작곡한 것. 멘델스존의 작품은 거친 파도 물줄기가 느껴질 만큼 뛰어나지만, 그곳 영상과 함께 하면 더욱 실감난다. 온화하고 푸근한 이미지의 저지대 땅도 알아본다. 왕궁과 성곽의 도시인 에딘버러는 충분한 눈요기 거리를 제공한다. 볼수록 신비로운 풍경과 함께 그곳의 느낌을 더욱 감명 깊게 하는 선곡음악까지 너무도 절묘하다. 멘델스존 작품 외에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낭만주의 시인 월터 스코트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를 기초로 한 도니체티의 <루치아> 음악도 쓰였다. DTS 서라운드 음향. 57분 54초

❖ 기존 출시된 음악여행 시리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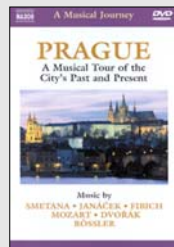
Naxos 2110501

A Musical Journey
London

Naxos 2110502

A Musical Journey
Vien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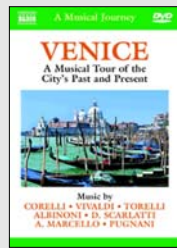
Naxos 2110503

A Musical Journey
Pra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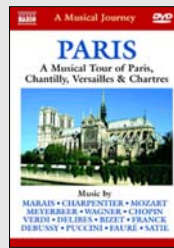
Naxos 2110504

A Musical Journey
R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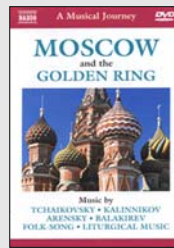
Naxos 2110505

A Musical Journey
Ven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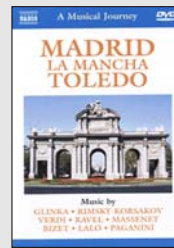
Naxos 2110506

A Musical Journey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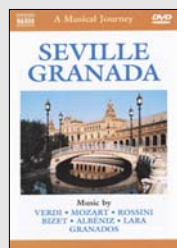
Naxos 2110507

A Musical Journey
Mosc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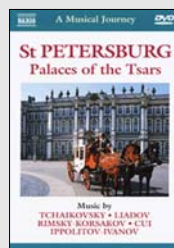
Naxos 2110509

A Musical Journey
Madrid
La Mancha
Toledo

Naxos 2110510

A Musical Journey
Seville
Granada

Naxos 2110511

A Musical Journey
St. PetersburgA
Musical
Journey

위기의 아프리카를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감동의 음악회

아프리카 라이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콘서트>

말라리아의 만연으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라리아 퇴치의지를 아프리카 땅과 세계를 향해 호소하기 위해 2005년 3월 밤에 마련했던 콘서트 실황. 세네갈의 한 스포츠 스타디움에 무려 5만 명 이상의 청중이 모였고, 내로라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음악가들이 총출동했다. 청중들도 박수치고 춤추고 양손을 흔들며 열광의 축제에 동참하는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축제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웃다 울다 한다.

몇 해 전 우리나라의 중견 탤런트 김성찬씨가 모 방송사의 프로그램 '지구 탐험대' 촬영차 라오스의 오지를 다녀온 뒤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 일이 있었다. 말라리아의 위협이라면 어디 라오스뿐인가! 저 커다란 아프리카 대륙은 말라리아의 만연으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가뜩이나 빈곤한 삶을 정말 힘겹게 꾸려가고 있다. 지금은 그 위협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타임지 최신포는 아프리카에서 현재 29초마다 어린이 한 명이 말라리아로 숨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전한 바 있다. 제목 그대로 이 DVD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콘서트 실황

을 담은 것이다. 2005년 3월 12일과 13일에 걸친 밤, 세네갈 다카르의 이바 마르 디오프 스포츠 스타디움에 무려 5만 명 이상의 청중이 모였다. 아프리카인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말라리아에 대한 새로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마련된 아프리카 실황 음악회.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아프리카 콘서트는 없었다. 내로라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음악가들이 총출동하고, 참성한 청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치고 춤추고 양손을 흔들며 열광의 축제에 동참한다. 물론 검은색 콘서트는 매우 특이한 경험과 감동을 제공한다. 월드뮤직의 한 편으로 그것도 음반으로만 감상할 때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아프리카 가수들의 독특한 가창과 춤,



IDEALE AUDIENCE DVD9M19

그리고 아프리카 뮤지션들의 뛰어난 음악은 신기할 뿐만 아니라 경이롭다. 하지만 그 콘서트를 즐기지만 할 수는 없게 만드는 것도 이 아이টে이 다. 중간 중간 아프리카 환경을 자주 스케치해주고 있는데, 호기심을 당기는 이국적인 풍광이 많다. 하지만 마냥 신기해 보일까? 배가 있는 바다풍경을 봐도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금세 정말 힘겨워 보이는 그들의 생활환경이 오버랩 되기 때문이다.

감독이며 프로듀서인 마이크 차기도 말하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말라리아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는 아프리카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에 있을 것이다. 2005년 그날 밤 아프리카에 있지 않았어도, 영상을 보면 그들과 함께 웃고 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실로 독특하고 감동적인 아이টে이이다. 5.1 서라운드 오디오 포맷, 좋은 오디오 환경이라면 스펙터클한 공연장 분위기를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보너스 트랙에는 58분이나 되는 아프리카 노래들과 유니세프의 말라리아 퇴치 필름까지 마련되어 영상물의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사랑과 연민의 감정을 많이 느끼는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은 아이টে이이다. 166분.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proprius

Jazz at the Pawnshop

전문가와 매니아가 인정한 최고의
오디오 파일용 레이블 프로퍼리우스(Proprius)
오디오 매니아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재즈 오디오 파일용 음반.
이제 SACD로 만난다...

오디오 매니아들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아온
Jazz at the Pawnshop의 두 번째 작품으로
1976년 12월 6일과 7일에 걸쳐 녹음된 아르네 돔네루스 콰텟의 숨겨진 레코딩을 담고 있다.

음악 팬들에게 친숙한 <Over the Rainbow>, <It Don't Mean a Thing> 등
선곡면에 있어서 전작을 능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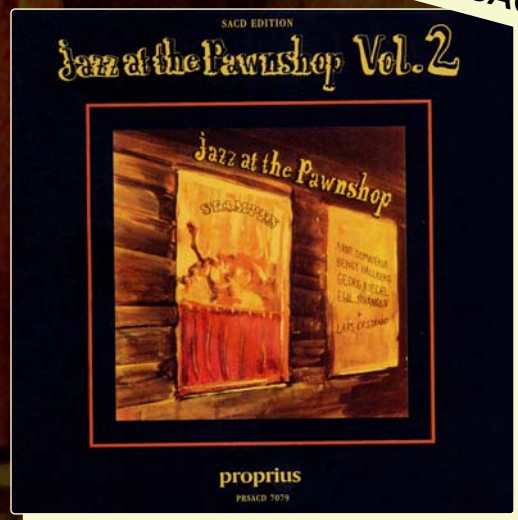
또한 클라리넷과 색소폰의 풍성한 블로잉, 그리고
더블 베이스의 은근한 울림을 잡아낸 탁월한 레코딩은
마치 바로 옆에서 연주하는 듯
환상적인 생동감과 선명함을 선사한다.

<<수록곡>>

Over The Rainbow
Now's The Time
Out Of Nowhere
Take The A Train
Here Is That Rainy Day
Struttin With Some Barbeque
Poor Butterfly
Exactly Like You
Jeepers Creepers
How High The Moon
Things Ain't What They Used To Be

Arne Domnerus _ alto saxophone and clarinet
Bengt Hallberg _ piano
Lars Erstrand _ vibes
Georg Riedel _ bass
Egil Johansen _ drums

PRSCD7079



Hybrid SA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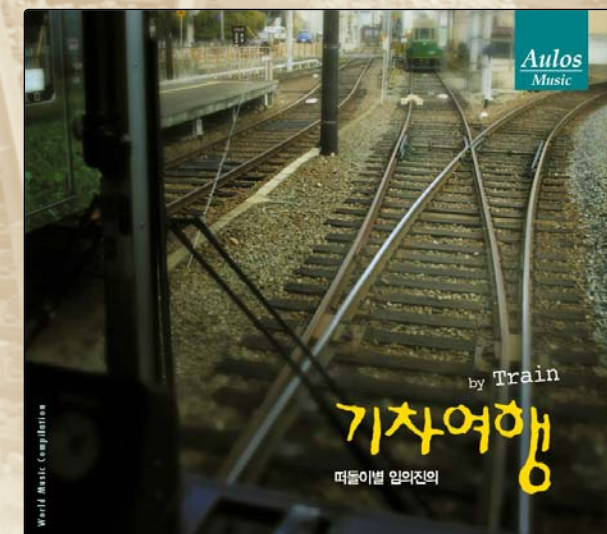
<여행자의 노래>로 독특한
월드뮤직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 시인, 수필가, 집시 가수
임의진 발發 특급열차!

기차 · 비행기 · 배 · 버스 여행 4가지 여행담의 제1탄!

by Train

기차여행

떠돌이별 임의진의



AMC2-067

세계 곳곳에서 그러모은 희귀곡들과 이국의 기차에서 아껴들은 노래들,
김두수의 신곡 <돌아오라 소렌토로>,
박남준 시인의 시낭송, 사토 유키에의 <마지막 기차>,
북한 여가수 이선주와 에디 리더가 함께 노래한 초희귀 음원 <자장가-별>,
쿠바의 음유시인 사라 곤잘레스의 절창 <내게 드리운 손길>,
임의진의 목청으로 듣는 김광석의 명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
18편의 저릿저릿한 글들, 사진작가 김홍희의 재킷 사진까지
여기에 세계 기차여행의 모든 준비물, 모든 노선표가 있다.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www.aulosmusic.co.kr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02_922_0100 팩스 02_922_2522



www.sunmoodang.com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8,800개 음반 / 130,000 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1,900 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컨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 CD Quality (64K)

시험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빌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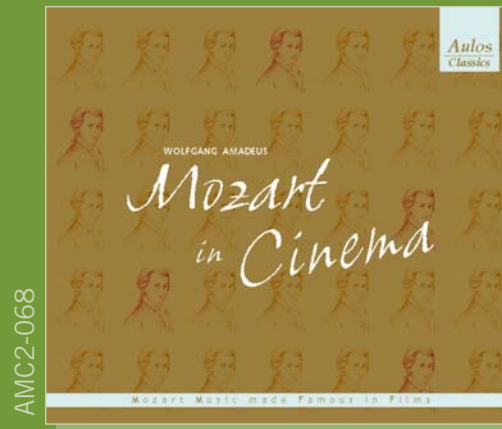


모차르트 음악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없었던 영화들...
영화에서 유명해진 모차르트 음악은 여기 다 모였다!

WOLFGANG AMADEUS

Mozart in Cinema

2CD
1장 가격



— 영화의 내용 및 사용된 음악에 대한 충실한 해설 —

CD One.

트루먼 쇼 / 아마데우스 / 아웃 오브 아프리카 / 엘비라 마디간 /
사랑의 여로 / 대역전 / 리빙 데이라이트

CD Two.

쇼생크 탈출 / 로렌조 오일 / 아마데우스 / 러브 오브 시베리아 / 하루 /
바베트의 만찬 / 애니 홀 / J.F.K. / 친절한 마음과 화관 / 페이스 오프



표지사진 : 파블로 카잘스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6년 5/6월호
통권 제 12호 발행 : 2006년 5월 24일
발행인 : 임용묵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usic.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